

DOSAN 2023

Korean Diaspora & Dosan Spirit

Hung Sa Dahn USA (YKA USA)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KAUPA)

January - September 2023

Application:
dosanessay@gmail.com



The 2nd Dosan International Essay Contest



DOSAN 2023 Essay Collection
Young Korean Academy/KAUPA
Young B. Choi (Ed.)

목차

인사말

림관현,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 4

제2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창수, 흥사단 6

DOSAN 2023

최영배, 북미한인교수협회 8

당선작

재외한인동포와 도산정신의 상관연동

김용환 9

가작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

이돈성 44

참가작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도산 정신

한응섭 63

색인

65

DOSAN 2023 행사 포스터

66/67

인사말



흥사단미주위원부와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가 주관하는 도산국제에세이컨테스트는 KAUPA 최영배 교수님과 이창수 흥사단원로단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22 년도의 제 1 회에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인인 수준높은 연구논문을 얻게된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 년도 수상작인 김용환 교수의 논문은 해박한 지식과 철저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하여 이념적 선입견과 정파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도산의 심오하고 명쾌한 주장을 설파함으로서 현재 종북이론과 친일 친미 배일 대중이론을 사익을 떠난 공익인 대공이론과 도산이 내세운 신민이라는 이름을 생명처럼 증언한 것은 참으로 이 논문에서 보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천도는 스스로 밝고 지덕은 새로우며 백성은 하늘의 도와 땅의 새로워진 덕을 받들어 사람이 지켜할 인륜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므로 도산이 맞은 새로운 세상, 신천지를 펼치는데는 새로운 인격을 갖춘 "신민"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어려서 도산이 한학을 공부하여 터득하고 구세학당을 통해 기독교의 공의의 하나님과 공자의 대공, 손문의 천하위공이 자연스레 대공으로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도산은 대동단결을 위해 내각 산하 하급기관인 노동총판을 자청하고 자유, 평등,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를 떠나 이민법을 어기면서 미국에 재입국 모금운동을하여 남경동명학원과 이상촌건설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김구 등 의혈단 윤봉길과 이유필이 의혈단과 관계없는 도산과 이유립을 이유필과 관계없음을 적극부인하지 않은 까닭과 일본경찰의 공명심이 결국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도산을 한국으로 압송하여 도산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 도산은 구구한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대한독립의 당연성 만을 주창하다 순국하셨습니다.

이 논문은 도산이 말한 신민의 후예요 더 신민인 우리에게 사익에 우선하는 대공주의 마음수련을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 대정신에 더해 다음과 같이 4 대 정진덕목을 더했습니다. 1. 겸손 2. 감사 3. 선행 4. 대공 의 4 대 덕목을 더 새기며 기회가 있을 때

도산의 진정한 제자 이유립 소년단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 림 관 현(Edward K. Rim)

제 2 회 [도산에세이 콘테스트]를 마무리하면서



1996 년도에 이곳에서 흥사단의 선배단우들을 만난 것은 어느 데니스식당에서 안재훈 송재승 이장훈 선배님과 이병도군이 전부였다. 그 당시는 모임이나 장소가 없었다. 월례회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그러면서도 LA 를 흥사단 미주위원부라고 불렀다. 광복후 흥사단 본부를 서울로 옮긴 후 LA 를 줄곧 미주위원부라고 불렀다. 간혹 흥사단에 관한 손님들이 오갈 때나, 독립유공자 선배중에 본국으로 봉송식이 있을 때 모였다. 해방후 반정부 성향의 운동을 줄곧 펼쳤으니, 당시 정부로부터

늘 경계대상이었다. 큰 기념행사를 치뤄도 화환하나 서로 나누지 않았을 정도였다.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을 흥사단 것이라고 말로만 외쳤지, 오래동안 그걸 감당할 인적 물적자원이 없었다. 그래도 백영중 전위원장님의 후원으로 사무실을 얻고 작게나마 모이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서의 학생아카데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서북미(타코마), 뉴욕, 동남부(아틀란타) 등지에서 자생적으로 지부가 생기고, 새로운 모습의 흥사단 미주위원부가 요청되었다. 심지어 캐나다의 토론토까지 모임이 확장되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점차 북미주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변모했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LA 에 지부를 따로 설립하기도 했다.

각 지부별로 도산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함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위원부에서 꾸준하게 방향제시를 해주지 못했다. 창단 백년이 되었어도 주된 모임은 도산선생의 탄생일, 서거일, 그리고 창단기념식 정도였지만, 그역시 벅찼다. 본인은 명실상부한 흥사단 미주위원부 총무를 초창기부터 여러 해 맡았었고, LA 지부도 창립후 첫회기 2 년간 총무를 겸임했다. 오랜동안 여러 면에서 단절된 상태였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지상에 '제 2 의 도산, 제 3 의 도산, 그리고 작은 도산'을 홀로 외쳐도 보았다.

근간에 주변으로부터 "흥사단이 왜 저래?" "흥사단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말을 빈번히 들었다. 이러한 말을 들어오던 중, 세상은 아직도 흥사단에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흥사단 운동의 미래상'을 어딘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찾을 수가 없을까?' 라는 꿈을 가져본 적도 있었다.

2019 년도 초에 Orange County(OC) 흥사단은 코로나 팬더믹사태로 집회장소를 잃어버렸다. 고유의 전통인 애국가와 단우회의 노래를 부를 곳이 없어졌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듯이 그해 10 월말부터 Zoom 미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때 Virginia 에 계시는 최영배 교수(KAUPA 14 대 회장)께서 모임에 참여했다. 서로의 뜻이 통해 '흥사단 운동의 미래상'을 추구하는 [도산에세이공모전]을 펼치게 되었다. 애초부터 최영배교수의 기획력으로 행사가 구상되었고, 광고되었고, 또 추진되었다. 참으로 귀한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았다. 행사의 광고가 유럽, 동남아, 호주, 남미,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인은 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흥사단에 몸담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흥사단 단우들과 주변에서 한마디의 망설임 없이 행사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다. 장철우 목사님, 김재동 박사님, 림관현 선배님(현, 미주위원부 위원장), 박광해 단우님, 이기욱 단우님, 정영조 선배님, 주정세 선배님, 김재실 선배님,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님, YTV America 의 조길원 부사장님, 액셀인쇄소 백사장님, Sandy Kwon 님 등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밖에도 응원하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특히, 도산에세이 콘테스트의 결과를 한권의 문집으로 나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해 주신 최영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계기로 흥사단 운동이 거둬 나가게 되고, 도산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고 또 드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이다.

2024 년 7 월 9 일

이 창 수, 흥사단

DOSAN 2023



이번에 제2회 도산 국제수필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주 흥사단과 북미한인교수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교적 원만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큰 흐름에 발맞추어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응모된 모든 작품들을 하나로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그마한 시도들이 민족의 스승이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평생 온전히 바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심과 깊은 삶의 철학을 우리가 더욱 본받고 실천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 하신 YKA 이창수 선생님을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9일

최 영 배, 북미한인교수협회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재외한인동포와 도산정신의 상관연동

김 용 환(충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임, 조지워싱턴대학 연구교수)

목 차

- | | |
|-----------------|-----------------|
| 1. 재외한인동포와 정진덕목 | 4. 재외한인동포와 인격함양 |
| 2. 재외한인동포와 시련극복 | 5. 재외한인동포와 문명의식 |
| 3. 재외한인동포와 무실역행 | 6. 재외한인동포와 원리원칙 |

1. 재외한인동포와 정진덕목

도산사상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재외한인동포와 도산 정신의 상관 연동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도산은 한민족 경영정신으로 '대공주의'를 남겼다.

이는 근대교육을 받은 소산이며 오늘날 재외한인동포 정진 덕목과 상관연동 된다. 아펜젤러는 1886년 6월 8일, 조선 최초의 근대 학교를 연다. 언더우드는 7월부터 찾아오는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고, 1886년 2월에는 외무아문독판 김윤식을 통해 교육 사업에 관한 공식 허가를 받았으며, 5월 11일 자신의 사택 사랑채에 「정동 고아원 학교」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몸차림과 방을 정돈하고, 8시까지 한문을 공부하고, 외국인 선생

들과 같이 아침 예배를 보고 나서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 후 영어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였다.

오후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한문 공부도 추가로 익혔는데 한문 공부는 조선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주요 과목이었다. 그런데 도산은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또한 도산은 1917에서 1918년까지 민족운동 진영에서 대동단결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주창하는 데 다소 비판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대동단결 선언」에 대해 대동단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독립을 위한 전쟁을 하자고 하거나 윌슨 대통령에 독립 승인을 요구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독립전쟁에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외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을 쉽게 내 줄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이 독립하려면, 한국민족으로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생활부터 독립 기반을 잡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도산은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일이라고 터부시 하였다. 이는 곧 한민족경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준비론이다. 독립을 위해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한민족경영을 위한 준비론은 한민족 장래에 대한 통찰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다. 도산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그는 민족 장래를 위해 선한 마음을 쌓는 것, 영혼을 닦는 것을 중시했다. 잘 산다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가지고 잘 죽는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힘든 난관을 겪는다. 우리 민족에게만이 고통을 주느냐고 반문하고도 싶겠지만, 고통의 순간 도산은 이 고통은 자신의 덕성을 연마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여겼다.

그는 민족의 고통을 도산 자신의 인간성을 성찰하고 단련하기 위한 절호의 계기로 삼았다. 도산은 거짓말 하지 않기,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자기 것만 생각하지 않기 등등, 「정동 고아원 학교」에서 터득한 규범들을 그대로 자신의 한민족 경영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이 원리에 따라 경영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외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인간으로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도산정신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한결같은 행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날 재외한인동포에게 도산의 한민족 경영 정신은 고지식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도산사상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재외한국동포에게 어떠한 삶의 지혜를 모색할지 다양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 속의 많은 지혜와 상통하는 도산의 한민족 경영 정신을 모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대의 편리함을 앞세우는 오늘의 재외한인동포에게 1세기 전의 도산 사상을 구식사상으로 여겨 외면할 수도 있다. 라틴어 전통에는 '일의 완성보다 일을 하는 사람 완성'을 중시하는 격언이 전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의 성과에 몰두하다보다 인격 완성은 뒷전이고 수식어처럼 간주할 수도 있다. 도산은 한번뿐인 인생을 진실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충고한 바 있다. 독립운동 기간에도 기회주의 방식을 배재하고 차근차근 우직할 정도로 민족정신의 근간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원칙으로 표명하였다. 도산을 통해 우리는 속세를 떠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꽃을 일구며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더불어 훌륭한 인생을 향유할 수 있음을 배운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바르게 정돈하고, 진화를 통해 발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근본적 생명력이며 우주의지이다. 이러한 우주 의지를 잘 타다 보면, 재외한국동포도 함께 번영하고 인생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의 인생은 몰락하거나 쇠퇴하기 마련이다. 우주의지에는 사랑과 지실, 조화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만물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주 진화를 알면 알수록 우주에는 모든 것을 성장시키고 진화시키는 어떤 '위대한 것'으로 우주 의지가 개입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산은 이러한 우주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와 상관하여 사유하며 행동으로 연동시켰다. 어릴 때부터 한문 교육을 기반으로 조선인형성을 위한 가치 교육을 받았기에 종교에 치우침이 없이 한민족경영에 있어서는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찰과 포용정신으로 잘 용해시켰다. 재외한인동포에게 도산의 이러한 갈등 극복의 통찰과 포용 정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도산은 한민족의 장래는 한민족 구성원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운명은 우리의 삶에 엄연하게 존재한다. 도산은 한민족의 운명도 따로 존재하겠지만, 한민족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한민족 구성원의 마음가짐이며, 인생은 그 마음가짐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도산은 '입명(立命)'이라는 말을 중시하였다. 생각이라는 도구로 인생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에는 한민족 구성원 각자의 그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도산은 민족혼을 일깨우고 입명하려는 자각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한민족 장래의 청사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에 따른 도산의 민족개조론은 생존 당시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된 조선민족이 자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지혜와 경쟁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새 사람', '신민(新民)'은 국주에 충성하고 종속적인 백성이 아니라 새롭게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각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주권재민으로서 스스로 자각하고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것을 중시했다고 할 것이다.

도산은 당시의 전제 군주제 대한제국을 미래의 민주 공화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혁신 의지를 담아 동지들을 규합하고 신민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각성된 신민들은 의식적으로 바꾸어 가꾸는 '민족 개조의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직체를 필요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신민회, 청년 학우회 그리고 흥사단의 발족 계기였다. 대성학교를 비롯한 학교설립, 각종 계몽 강연 그리고 도산의 다양한 언론 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종 조직과 시설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민족의식을 조직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범 사회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그의 시민사회 운용의 근간에는 국민 자유를 바탕으로 일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화 정착이 염원으로 작용하였다. 국민 자유를 강조하던 도산이 1920년 이후 대 독립당운동에 앞장서면서 '대공주의'를 주창할 무렵부터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표방한 점은 주목할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산은 1922년 7월에 이르러 신익희, 김구, 조소앙 등 50여 명과 함께 '시사 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적으로 가동하였다.

아울러 도산은 당시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회주와 회주 아닌 '비회주'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국민대표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최고 통괄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혼신의 힘을 바쳤다. 그 결과 상해에서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민대표회의가 성황리에 열렸다.

당시 도산은 미주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참여하여 국민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개조파의 핵심 인물로도 활동하였다. 하지만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더니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국민대표회의와 결렬한 이후 도산은 '이상 촌'의 건설에 뜻을 두고 중국 관내와 만주 등지를 시찰하고 1924년 2월 상해로 귀환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미주 흥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남경에 동명학원을 설립하고, 4월에는 상해청년동맹의 결성을 후원하고, 10월

에는 흥사단원동대회의 개최를 주도하였다. 같은 해 11월 도산은 상해를 떠나 하와이를 거쳐 12월 미국으로 다시 귀환하였다. 그 뒤 도산은 1926년 4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까지 근 1년 반 동안 미주지역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도산은 흥사단과 대한인국민회 동지들을 만나 독립운동 방략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이상촌'의 건설지원을 부탁하고, 임시정부 지원금으로 인두세를 낼 것을 미주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임시의정원은 미주에서 돌아온 도산을 1926년 5월 8일 정부 반인 '국무령'에 선임하였지만, 도산은 취임하지 않았다. 재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독립운동계의 통일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8일, 상해 귀환을 환영하는 연설회에서 도산이 '주의'에 기반을 둔 이념을 초월하여 '대혁명당 조직, 임시정부 유지'를 표방한 주장도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도산은 '대혁명당'으로 한민족의 유일당을 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1927년 1월, 길림에 도착하여 독립 운동가들과 만나 유일당 결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1월 27일에는 길림성 동대문 밖 대동공사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선 독립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연설을 통해 민족유일당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때 중국경찰에 피체되어 20여일 만에 풀려난 '길림사건'을 겪었지만, 석방 이후에도 만주 각지를 순회하며 대동단결을 호소하면서 대동단결 의식을 고취시켰다. 나아가 도산은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인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당시 풍미하던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론'도 수용하면서 '대공주의(大公主義)' 도산사상을 심층적으로 정립했다.

대공주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중용을 취하기 위한 제3의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산의 대공주의는 공익을 최고덕목으로 표방하고 있다. 당시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초래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산은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건설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도산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설정하고 스스로도 내면수양에 힘을 기울였다. 지도자만 마음을 수양하고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수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지고의 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마음다운 마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다.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마음 수련 상태이다. 그것은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감정을 제어하고 친절함 배려심이 싹트고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고 이타

심이 생겨나는 상태이다.

도산정신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도산정신에 근거하여 네 가지 재외한인동포 정진덕목으로 거론할 수 있다. 첫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을 일상으로 이어간다. 겸손은 이익을 가져오고 미움의 행복을 부른다. 도산정신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재외한국동포는 스스로 전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겸손을 일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함을 일상으로 이어간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풀 포기 하나라도 생명이기에 소중하다면, 많은 재외한국동포포가 마주하는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표시함을 일상으로 이어가야 재외한국동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셋째, 남을 위한 선행을 일상으로 이어간다. 적선하면 경사가 찾아오듯이,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먼저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남을 위해 선행을 쌓고 공덕을 베풀면 반드시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산이 한민족 운명은 한민족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했듯이, 재외한국동포의 적선을 실천하는 마음가짐 따라 미래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넷째, 감성적 고민을 하지 말고 날마다 성찰을 일상으로 이어간다. 항상 불평을 앞세우고 감성적 고민에 사로잡히면, 후회하기 마련이다.

이는 곧 자신만 생각하는 비겁한 행동일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일상으로 이어가야 재외한국동포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할 것이다. 꿀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쾌락을 의미한다. 인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뱀은 인간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빨간 색깔의 뱀은 '노여움', 검정 색깔의 뱀은 '욕망', 파랑 색의 뱀은 시기와 질투, 원망 등의 '어리석음'이다. 세 가지 뱀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유혹하는 원흉이다.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라며 화를 내고, "남보다 빨리 출세하고 싶다."라며 욕망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이웃을 보며 질투심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손자가 더 귀엽고 자신의 손자를 홍보하면, 적개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파국에 이르러 도산은 '대공(大公)'검을 빼면 성공이지만, '사검(私劍)'을 빼면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탁한 소망'의 사검을 빼 들고 그 꿈을 실현하더라도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지기가 쉽다. 시비곡직을 바라볼 때, 하느님의 우주 기운을 알아차리면 사검을 집어넣고, '대공(大公)' 검을 빼들고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야 한다. '대공

(大公) 검으로는 세 마리 옥망의 뱀을 모두 무찌를 수 있고, 올바르게 성취할 수 있으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도산의 대공주의 정신은 일상의 혼돈을 바로잡기 위한 '알아차림'의 태도를 말하기에 재외한국동포에서 일신경영의 훌륭한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산의 민족운동은 먼저 실력배양을 한 후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2. 재외한국동포와 시련극복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듯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아픔이 수반된다. 젊은 나이에 별을 바라보면, 마냥 푸르고 날카롭게 다가온다. 나이가 들면서 바라본 별빛은 붉은 빛을 띠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시련을 극복하고 느끼는 별빛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도산은 일생을 통해 4차례나 감옥에 투옥되면서 모진 고초를 감내해냈다.

첫 번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처단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자 '살해가담 혐의'를 받고 평양에서 긴급 체포된 적이 있었다. 용산 헌병대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은 도산은 영등포 감옥에 투옥되었다.

두 번째는 1927년, 만주 길림을 방문했을 때이다. 길림성 대동문 밖에 위치한 최명식의 집인 대동공사 앞에서 500여 명의 교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나석주의 추도식 겸 강연회에서 도산은 '대한청년의 진로'에 대해 강연하던 중 무장한 중국경찰에 연행되어 길림 경찰청 구치소에 구금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거가 일어난 날, 이유필 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프랑스 경관과 일제 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상해 일본군 헌병대로 끌려가 취조를 받은 후 국내로 압송되었다. 경기도 경찰부 취조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도산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았으며 4년 징역형을 언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그 이후 도산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형을 마치고 출옥하였다. 도산은 평양 대보산에 은둔해 있으면서 지친 심신치유를 했지만 1937년 6월, 중일전쟁을 앞두고 '동우회사건'을 일으킨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옥중에서 병이 깊어지자 일제는 서둘러 병 보석으로 출감시키고 경성제국대학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도산은 최후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시련을 맞이한 상황에서 도산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

아가는 재외한국동포에게 날카로운 별빛이 아니라 따뜻한 별빛으로 도산사상이 상관연동 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10시 10분,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거가 일어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의사는 상해 일본군 헌병대로 넘겨져 취조를 받고 헌병대구금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 끌려가 갓은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받은 윤봉길의사는 “춘산이라는 한국인에게 폭탄 2개와 200위안을 받고 폭탄 투척을 명령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 춘산은 이유필의 호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일제 영사관 경찰은 프랑스 조계공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의거 날 당일, 오후 2시 이유필 집을 급습하였다. 이유필이 집에 없자 경찰들은 집 주위에 잠복해 있다가 이유필을 방문한 도산을 체포하였다. 그 때가 오후 4시경이었다.

상해 소년단체, 소년동맹의 간부이던 이유필의 아들, 이만영에게 도산은 소년동맹이 주최하는 축하행사 비용 2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유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산은 자신이 중국 국적자로 일본인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프랑스계 공무국 경찰은 도산을 일본 영사관에 넘기었다. 일제는 이유필을 대신하여 체포한 이가 안창호라는 거물 임을 알고 체포하였다. 프랑스계 공무당국은 일제압력에 굴복, 법적 수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일본 영사관 경찰에 도산신병을 인도하였다.

도산이 일본 영사관에 감금되었을 때, 도산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방면에서 경주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 일본 영사관 경찰은 도산을 치안 유지법 위반 피의자로 기소하고 1932년 6월 2일 아침, 한국으로 압송했다. 도산 일행은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관의 호송을 받으며 인천 동산교에 상륙하였다. '수상서'의 잔교 아래에서는 경기도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도산은 회색 중절모를 쓰고 선박에서 내렸다.

1910년 4월에 한국을 탈출, 중국과 러시아, 만주, 그리고 미국 등지로 23년간을 온갖 풍상을 겪은 후 고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도산의 나이는 54세였다. 인천 부두에서는 도산을 맞이하기 위해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오전 5시 반경부터 도산의 친형 안치호와 누이동생 안신호, 조카딸 안맥결 등 친인척과 조만식, 김병연 등 친우 30여 명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도산과 해후하지 못하였다. 이후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인신은 경기도 지방법원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도산이 수감된 경기도 경찰서 유치장에는 10여개의 감방이 있었다. 그 감방에 유치되어 있던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감 조치되었다. 도산을 취조하던 사상계 경부는 도산의 인격

에 감복하여 자기의 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죄'가 가볍도록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국에 송치했다고 한다. 40여일 도산을 신문한 경부는 '치안유지법 위반, 제령위반, 출판법 위반' 등의 법령을 적용해 조서를 꾸몄다. 취조가 끝난 후, 도산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검사국으로 송치되기 전날 밤, 경부는 도산에게 남산 길을 드라이브하고 서울의 밤경치를 구경시키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종로구 견지동 윤치호의 집에 들렀다. 도산은 윤치호와 만나 차를 마시며 회포를 푼 후 유치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이 진행되었을 때 예심판사도 도산을 심문하면서 '조선의 위인이요 영웅' 호칭의 찬사를 했다. 1932년 7월 15일, 도산은 경기도 경찰부로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신병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전 조사를 받았던 도산은 7월 25일자로 구류 기간 만기가 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하였다. 당시 독방은 채광이 잘 안 되는 비좁은 방이었다. 겨울엔 얼음창고 같은 감방 안에서 손발이 전부 동상을 입어 칼로 썩은 살을 베어 내어야 했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도산은 허리 신경통이 심해져 앉기가 불편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추운 날이면 그 증상이 한층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다. 당시 형무소를 방문하는 변호사들이 도산을 밖의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끈이었는데, 면회를 다녀 온 변호사 김병로는 도산이 신경통과 소화 불량으로 인해 고생하며 신체가 매우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친지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럼에도 도산은 언제나 자신의 건강 상태는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친지들에게 보냈다.

도산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진행된 예심 심문은 1932년 9월 5일(제1차), 9월 6일(제2차), 9월 7일(제3차), 9월 8일(제4차), 9월 9일(제5차), 9월 12일(제6회), 9월 13일(제7회), 9월 16일(제8회), 9월 26일(제9회), 그리고 10월 19일(제10회),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심 신문을 받는 중에 "공산주의를 연구한 일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도산은 자신은 민족주의자이며 약소민족의 독립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정치를 희망하고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차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계속하여 운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소. 앞으로도 조선독립을 위해서라면 있는 힘을 다하여 활동할 생각이외다."라며 당당히 대답하였다. 그리고 당시 동우회 회원이면서 흥사단원, 장성심이 김동원 장로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산을 여러 차례나 면회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장성심은 만일 일제가 법정에서 “만주 출병을 반대했느냐?”고 물으면,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해야 형기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 때 도산은 “어찌 일국의 지도자가 감형을 받고자 자기 일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구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거절했다. 예심 신문을 마치고 그해 12월에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자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은 무보수를 자청하며 변호를 앞 다투어 자청하였다. 그러나 도산은 “법정 변론은 필요 없으나 옥 내외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김병로와 이인, 그리고 김용무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93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 경성 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도산은 징역 4년 미결 구류 50일의 최종 판결이 구형되었다. 도산이 피검된 지 8개월만이였다. 오전 11시 45분 재판장은 도산을 피고인석으로 불러 세운 다음 15분간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12시 정각에 폐정을 선언하였다. 김용무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청하여 도산에게 공소 여부를 묻자 도산은 가족과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간수에 이끌려 퇴정하였다. 27일 오전, 변호사 김용무가 담임 변호사 일동을 대표해 서대문형무소로 가서 도산을 면회하고 공소 여부에 대한 의향을 묻자, 도산은 공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형무소를 방문한 변호사에게 “30년 독립운동이 겨우 4년 징역밖에 남은 것이 없소.”라고 유머 있는 어조로 말하며 4년의 징역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도산은 판결을 받았을 때에 바로 공소권 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자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변호사 제씨와 친지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하여 양해를 얻어 복역하려는 뜻을 분명히 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 김병로는 보석원을 제출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미주에서 도산을 위한 재판 찬조금이 도착하자, 일제는 이들 자금의 출처를 혈안이 되어 조사하였다. 한편 1933년 1월 24일 오후 4시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조용하가 ‘치안유지 위반혐의’로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을 때, 경성 지방법원 검사는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인 도산을 증인으로 호출함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왕래한 사실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형무소 당국은 사상범이나 정치범들에게 항상 사상전향을 유도하곤 했는데, 도산은 사상 미전향자로 분류되어 독방에서 생활하였다. 오랜 독방 생활에서 도산의 심신은 점차 쇠약 해져갔으며 위병으로 인해 독거 생활을 더 이상 감내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상범으로 분류된 수인들도 형무 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당시 형무작업으로 얻은 소득이 형무소 운영 비용의 40%를 충당했다고 한다.

대전형무소에서 도산은 바늘로 옷을 꿰매는 재봉 일을 하면서도 '기분으로는 좋다.'라며 매사 긍정적으로 주변에 얘기를 했다. 종이로 노끈을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품을 제작했던 도산은 오랜 독방 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지자 "나의 고향은 옷칠의 생산지인 만큼 나를 칠 공장에 출역시켜 주면 칠 가공기술을 배워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후진을 지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노라."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무소 측에서는 이러한 청원을 들어 주어 도산은 칠 공장에 출역하여 옷칠 기술을 습득하였다.

일에 임해서는 무실역행 정신으로 임했던 도산은 형무 작업을 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노끈을 꼬아서 그릇과 화병 등을 만들고 그 위에 옷을 칠하여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1935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 도산은 형기를 남기고 가출옥하여 대전 형무소 문을 나섰다. 본래 만기 출소일은 1935년 11월 6일인데 일본 천황의 황태자 출생을 기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수감자들에 대한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 대전형무소를 출옥할 때, 가족들과 주요한을 비롯한 친지들이 마중하였다. 대전역 정거장 식당에서 잠깐 휴게를 취한 후 도산 일행은 오후 3시 27분 대전 발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으며 평양행 기차로 갈아탔다. 평양에서 여운형과 조만식을 비롯한 4천 여 군중이 평양역에 도착하는 도산을 영접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서의 55일간의 도산의 투옥 생활은 민족의 구원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과 민족의 제단 앞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거룩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도산의 건강이 악화되어 옥사할 수도 있는 우려가 구체화되면서, 서대문형무소 측에서는 1937년 12월 24일, '병보석'으로 도산을 급히 보석 출소시켰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내과에 입원시켜 전문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위장병 및 폐결핵 병세가 위독해지자 도산의 친형, 안치호에게 급히 알렸다. 일제의 감시로 인해 도산의 병실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1938년 2월 23일까지의 입원 비용 약 900엔이 지급되자 일제는 도산의 병원비용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동우회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병실에는 김순원과 이갑의 딸, 이정희가 간호를 맡으며 병실을 지켰다. 3월 9일 오후 3시쯤 주치의 김용필은 최후를 위해 마음 준비를 하도록 청하였다. 전날 혼수상태에 빠졌던 도산의 정신이 간신히 돌아오자, 의사는 도산에게 최후를 준비할 것을 말해주었다. 도산은 덤덤히 유언처럼 말하였다. "나일로 말하면 육십을 수했으니 부족할 것이 없고 병이 낫는 대야 갈 곳이 감옥 뿐이요, 적의 발악이 점점

더 심할 모양이니 이 때에 죽는 것이 몸으로서는 편하지만..... 내가 대보산을 사랑해. 문힐 자리를 택하는 건 욕심이나 형편이 허락하거든 대보산으로 가져가고 그럴 수 없거든 망우리가 좋아. 망우리로 가게 되면 유상규군 곁에 묻도록 하오.”

3월 9일 오후 7시경에 이선행이 병실을 방문했을 때, 도산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방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선행이 사가지고 간 두 송이 장미를 머리맡에 꽂아 놓았을 때, 도산은 무의식 상태에서 '너무 안 와'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일생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들로 들끓었는데 일본인들의 감시로 인해 문병 오는 사람이 적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 도산은 1938년 3월 10일 0시 5분에 서거하였다.

도산이 서거하자 경찰 당국은 재빨리 장례식 집행에 대한 주의와 제한 방침을 마련해 이를 가족에게 통고하였다. 서거 당일인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주의 및 제한 내용을 가족에게 통고하였다. 3일장 마지막 날인 3월 12일, 고별식은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영안실에서 열렸다. 친족으로는 안치호, 안신호, 김성탁, 김순철, 김순원, 안동철, 안봉호가 참석하였고 비근친자로서는 유일하게 조만식의 참석만이 허용되었다. 장흥범 목사의 주도로 찬미가 제248장이 합창되었고 조만식장로의 기도사가 있었다. 이어 장흥범 목사가 고린도 전서 제 15장, 50장을 낭독하고 찬송가 제35장을 합창 한 후 1시 45분에 고별식은 끝났다. 오후 2시 5분 발인하여 도산의 관이 자동차로 옮겨져 묘소인 망우리 묘지로 향하였다.

일반 출입구와 부근 도로 등지에는 경찰들이 만일에 있을 소요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찰 경계를 강화하였다. 오후 3시 30분, 영구차는 망우리에 도착하였다. 현장에서 간단한 기독교식 하관식을 거행한 후, 관은 즉시 매장되었다. 묘지에 심으려고 가지고 갔던 무궁화 묘목을 압수당한 채, 4시경 장례 의식은 서둘러 끝났다. 장례식이 끝나자 일제는 도산의 조카 김순철을 비롯해 친족들도 바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 안치호는 삼각정 중앙호텔에 2, 3일간 잔류하며 잔무를 처리하면 바로 귀향하도록 감시하였다. 조만식도 중앙호텔에 1, 2일 간 체류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경성에 있는 동안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두 사람의 동정을 유의 감시하며 일체의 추도회 등이 열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일제는 도산을 국내로 압송해 감시와 억압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민족적 영향력을 소멸시켜버리고자 온갖 분열획책과 전향 공작을 전개하였다. 민족 통합과 결집의 상징으로서의 도산의 면모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으며 황민화의 시대에도 도산을 중심으로 민족

주의는 오히려 결집되었다. 도산은 경찰서와 법원 구치감, 그리고 형무소에서 투옥생활을 하던 중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일체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투옥생활 동안 그의 건강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갔다.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평양 대보산 송태산장에서 잠깐의 은둔 생활을 하며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일제는 황민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존재만으로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는 도산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중국침략을 준비하며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민족운동을 박멸했던 일제는 또다시 도산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하였다.

도산은 옥중 수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일제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도산을 국내로 압송해 형무소 울타리 안에 가두고 온갖 분열 책과 전향 공작을 전개하고 민족 영향력을 소멸시키고 외부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도산의 존재는 민족 통합과 결집의 상징으로 빛을 발하였다.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다. 어둠이 없기에 별빛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일제 수난기 어둠을 밝힌 도산의 별빛 같은 인생을 바라보며, 고통과 시련이 재외한국동포에게도 찾아오겠지만 어둠이 있어야 시련을 극복하고 별빛으로 판명됨에 주목하게 된다.

3. 재외한국동포와 무실역행

볼펜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써야 할 때, 잉크가 떨어져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볼펜에 든 잉크처럼 정작 중요한 때 우리의 인생 시간이 소진한 때가 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부식돌의 불꽃처럼 짧은 것이다. 그래도 인생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도산에게 주어진 시간에 헌신함은 무실역행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전개한 것이 구국의 살림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재외한인동포들에게도 도산의 무실역행 정신은 상관연동으로 작용하여 개인 살림에 머물지 않고 구국의 살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 가치를 드러낸다.

도산은 독립협회 해산 직후인 1899년, 평남 강서에 점진학교와 탄포리에 교회를 설립하여 교육계몽과 전교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유학을 떠나 미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도산은 1902년 9월, 밀러 목사의 주례로 서울 '제증원'에서 이해련과 결혼한 뒤, 교육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부동반으로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도산은 그곳 공립소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1903년 9월, 한인동포단

결과 계몽을 목적으로 상향한인친목회를 조직하였다. 게다가 1904년 3월,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로 이주한 뒤, 신학강습소에서 영어와 신학을 수학하면서 1905년 4월, 한인친목회를 발전시켜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공립신보'를 창간 하고 발행하면서 한인동포의 계몽과 단결,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과 통감부 설치 등으로 조국이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가자 국내에 들어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도산이 미주에서 대한신민회 발기를 준비하여 「대한신민회 통용장정」과 「대한신민회 취지서」등을 작성하고, 1907년 1월, 뉴욕을 떠나 일본을 거쳐 2월 20일 귀국한 것은 이 같은 결심을 실행하기 위함에서이다. 도산은 1907년 2월 20일, 귀국 직후 대한매일신보사의 총무, 양기탁 닉을 방문하여 신민회 결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지들을 물색하여 규합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였다.

그 결과 도산은 양기탁, 전덕기 등과 함께 같은 해 4월, 한말최대의 비밀결사로 신민회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서북학회와 평양대성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계몽운동, 태극서관과 마산동 도자기 회사 등을 설립해 실업진흥운동을 전개하였고, 가옥개량과 모범농장 건설,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창했으며, 애국가 보급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09년 8월, 청년학우회를 창립한 도산은 청년들을 교육계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계 등 각계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청년학우회는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신민회 해체와 동시에 사라졌으나 1913년 미주에서 결성된 흥사단이 그 취지를 이어 갔다.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지만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같은 해 7월 '정미7조약'을 강제한 뒤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하였다. 이제는 국내에서 국권회복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도산과 신민회 회원들은 미주의 공립협회와 함께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해 항일투쟁을 준비하는 새 전략, '독립전쟁전략'을 구상하였다.

공립협회도 1908년 10월, 아세아실업주식회사를 발기하고, 미주 한인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북만주 봉밀산지역 개척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후 아세아실업주식회사는 태동실업주식회사로 바뀌었다. 도산은 1919년 4월 미국을 떠나 홍콩을 거쳐 1919년 5월 25일 상

해에 도착한 뒤, 6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도산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집무하면서 그 해 9월 통합 정부가 성립하기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주관하였다.

내무총장에 취임하면서 도산은 한편으로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그리고 한성에서 성립한 임시정부의 통합 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통치조직망으로 연통제실시를 추진하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비밀리에 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국내 동포들을 통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구상이 법제화된 것이 1919년 7월 10월 국무원령 제1호로 발표된 「임시연통제」였다. 도산은 내무총장에 취임한 직후 「임시연통제」를 시행하면서,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연통제 설치를 추진했다.

이밖에도 도산은 교통부 산하에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와 임시정부의 연락 교통망을 구축해 국민적 기반을 마련했다. 북간도와 서간도 등지에도 특파원과 선전원을 파견해 만주의 독립군 조직을 임시정부 산하로 통합하려고 힘썼다. 또한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널리 알렸다.

도산의 생활의 철학과 구국의 살림은 무실역행에 근거하고 있다. 도산이 무실역행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성장환경 및 당대의 역사적 배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 도산은 조선왕조 시기 소외지역이었던 서북지역에서 평민으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더욱이 도산이 태어나서 성장하던 시기는 외세침략으로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때였다. 이런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서 국가 위기는 일찍이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한 데 기인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도산은 국가 위기의 극복은 바로 힘을 기르는 길 밖에 없음을 절감하였다.

결국 민족 개개인이 무실역행을 수행하는 신국민이 되어 신국가를 세워야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산은 신국가의 주체로서 신국민의 건전한 인격 함양과 함께 신국민의 무실역행을 주창하였다. 무엇보다 도산은 장로교 계통의 구세학당에 다니면서 그가 성장한 서북지방의 사회적 풍토와 당대의 역사적 조건 아래 법률의 공정한 집행, 자유로운 사고, 근면과 성실, 노동의 신성을 추구하는 청교도적 기독교사상을 수용하였다. 이후 도산은 이러한 사상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며 각종 사회활동과 구국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산의 무실역행은 흥사단 전신으로 한말에 조직한 청년학우회 이래 줄곧 견지한 실력

양성과 국민계몽 운동, 독립운동의 기본 정신이었다. 이 가운데 무실의 논리는 도산 자신이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신용자본을 동맹 저축합시다.'라고 한 데서 나타나듯이, 사회분야에서 공동신용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실업진흥 요체를 '신용'에서 찾는 자본주의 경제윤리이자 힘써 일하는 근면의 윤리였다. 이에 무실 논리는 서구 자본주의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사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신용과 노동을 중시하는 도산의 무실의 논리는 금욕, 절제, 근면의 청교도적인 기독교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무실의 논리 구조는 재외한인동포들의 생활윤리로서 널리 수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산이 제창한 역행 논리는 '신용자본'과 더불어 한 가지 이상의 학술이나 기능을 습득하여 전문 직업을 감당할 만한 '지식자본'을 동맹 저축하고, 각기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금전자본'을 동맹으로 '저축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실력 양성의 논리로 민족교육론이자 실업 진흥론이며 자본주의 '근대화론'이었다. 따라서 도산의 무실역행은 평민적 실업주의로 특징 지워지는 미국식 자본주의 근대화를 추구하였기에 재미 한인의 생활윤리로 일찍부터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미주 한인들에게는 자신을 위한 개인주의와, 민족과 조국을 위한 '공동주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도산은 개인주의와 특종주의, 그리고 공동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입각하여 미주 한인들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참여를 생활윤리의 하나로 부각시켰다. 또한 도산은 현재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을 건전한 개인 인생관으로부터 길러진 건전한 공동주의였다. 도산은 불건전한 공동주의는 불건전한 개인주의를 길러내는 온상이라고 하면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양자관계를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 주체인 한 사람의 국민과 공동주의 주체, 민족이나 국가가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 이는 곧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산은 민족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개체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사회적 공동주의였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보면, 한국은 일제강점으로 식민지가 되었기에 건전한 공동주의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건전한 개인주의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제 남은 것은 건전한 개인주의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건전한 공동주의 육성의 길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진작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민족 개인이 건전한 인생관을 함양하여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길만이 민족독립과 조국광복의 첩경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사회적 공공성에 입각하여 도산은 독립운동 시기에 대동단결론을 내세

우고, 대공주의를 정립하였다. 도산은 초기 임시정부의 통합운동, 청산리대첩 직후 '대독립당' 건설의 제창, 국민대표회의 발기와 주도, 1920년대 중반 '민족유일당' 운동과 한국 독립당 창당을 했다. 이러한 도산의 여러 활동 양

상은 등이 바로 사회적 공공성에 입각한 대동단결의 구현이었다. 이로써 도산의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실역행은 개개인의 행동철학이자 민족독립운동론으로,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는 인류공영사상으로 점층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도산이 한인들은 물론 재외한인동포들을 상대로 무실역행을 내세우며 '개인의 건전한 인격 육성을 기초로 하는 건전한 공동체 사회건설'을 주장하고, 그를 위해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수양단체를 발족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도산의 무실역행은 재외한인동포만의 생활윤리가 아니라 한민족전체의 생활윤리이자 독립운동론이었고, 더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공생 발전을 지향한 세계시민 윤리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도산의 사회사상과 독립운동론은 무실역행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사상근저에는 도덕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도산은 타자위주 도덕주의 관점도 강조했지만, 그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주의를 우선시하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자기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도덕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야 사회운동이나 독립운동이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며 인류 평화와 공영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단한다면, 도산 당대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 문제는 도덕주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주의 사상을 재정립하여 전파하는 문제는 민족구성원의 인격함양을 꾀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와 침략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산의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실역행은 사회변혁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재외한인동포들에게도 유익한 사상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유주의 과잉으로 초래된 사회적인 방탕이나, 자본주의 과잉으로 야기된 독점과 착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 사상이다. 결국 도산의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실역행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신음하던 당대의 역사 과제를 해결할 민족운동 지도론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휩쓸고 있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사회 공공성 담론으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도산은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전쟁전략을 구상하여 만주 밀산에 독립군 기지

개척을 추진하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대한인국민회의 최고기관으로 중앙총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는 북미지방총회, 하와이지방총회, 시베리아지방총회, 만주지방총회 등을 거느린 다국적인 한인 자치조직이자 '준 정부'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재외한인동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신민으로서 건전한 인격양성과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한말 청년학우회를 잇는 흥사단을 조직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로 취임하여 초기 임시정부의 기틀을 잡았다. 노선과 이념대립으로 임시정부가 약화되자 도산은 독립운동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앞장서 제창하고 개최하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하였다.

특히 국민대표 회의를 통해 임시정부를 명실상부한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독립운동 최고 통솔기관으로 개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대표회의가 개조파와 창조파의 파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재야에서 임시정부를 후원하면서 '대독립당' 결성을 위해 민족유일당 건설운동에 매진하였다. 이것마저 난관에 봉착하자 도산은 먼저 우파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독립당' 건설을 지향해 나아갔다. 사회주의를 수용한 진보적 민족주의로 대공주의를 정립하고 좌파 민족운동 세력과 통합을 모색해가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민족운동 조직과 이념을 정비하면서 '대독립당'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당 건설에 따른 국가 경영방침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그렇지만 윤봉길 의거 직후 일제에게 피체 됨으로 시련에 봉착하여 원대한 꿈은 꺾이고 말았다. 도산의 민족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지도 이론은 기독교도덕주의에 입각한 무실역행과 그에 따른 숭선수범의 리더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의 무실역행 사상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도산의 생활 철학이며 민족운동지도론이다. 무엇보다도 미주한인동포의 생활윤리는 물론 독립운동 참여의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독교도덕주의에 입각한 공동주의와 이를 공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킨 대공주의는 도산이 민족운동 내내 지향했던 '대동단결'의 이론적 기반이자 동시에 실천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한결같이 도산은 조직을 만들고 이념을 정립하고 인재를 키워가면서 민족역량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실천기반으로 삼아 민족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했다. 결국 도산의 민족운동과 민족운동지도론은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무실역행의 공공가치에서 우리는 재외한인동포의 부국유덕(富國

有德)에 대한 도산전망을 엿볼 수 있다. 조국의 부국과 함께 재외한인이 살아가는 국가의 부국을 함께 바라면서 양자를 이어가고 매개하기 위한 유덕(有德)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조국과 현재 살아가는 나라는 차이가 있지만, 부모처럼 우리의 미래를 전개할 삶의 터전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부유함이 아니라 덕을 통한 나라 세우기가 자타 모두 유익한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할 것이다. 경제력이 아닌 덕으로 베풀게 되면, 상호 간에 신뢰와 존경을 유지할 수 있다. 조국이 삼아야 할 목표는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이 아니라 덕을 갖춘 나라 만들기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폴란드의 국력회복을 위한 상호호혜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우크라이나 험지를 방문하여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우호적 실천을 다짐 한 것은 귀감이 되고 있다.

주판을 잘 튕기는 나라, 군사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덕을 베풀 줄 아는 인간의 숭고정신을 대공주의로 삼아 국가이념토대로 삼고 있음을 보인 사례이다. 재외한인동포가 사는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동참할 때, 체류 국가와 함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가 존재가 될 것이고,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나라를 침략하는 악한들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도산의 무실역행에 근거한 덕의 실천은 최선의 안전보장책일 것이다.

4. 재외한인동포와 인격함양

도산은 당시의 절망상황에서는 인격함양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로서 도산은 건전한 인격함양을 손꼽았다. 당시 도산은 인격의 함양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이에 도산은 일찍부터 인격함양의 중요성에 근거한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평생 교육사업과 계몽사업 그리고 인물양성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이러한 도산의 인격함양 태도는 재외한인동포에게 상관연동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는 20대에 고향 강서에 점진학교, 30대에 평양에 대성학교, 50대에 중국남경에 동명학원을 세웠다. 또한 20대에 미국 유학을 떠나 자신이 하고자 했던 공부는 뒤로 한 채로 교포들의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청년학우회와 흥사단을 만들어 인물 만들기 운동, 지도자 양성운동을 필생사업으로 전개하여 민족독립과 번영을 위해 학생이나 청년들이 건전한 인격으

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도산은 “우리의 불쌍한 조국의 동포들은 참으로 힘을 예비하는 인물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배우자’고 한 그 작정, ‘옳은 사람 되자’고 한 그 작정을 잊지 맙시다. 잊었거든 다시 생각합시다.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합시다.”¹라고 갈파했다.

도산은 청년학생을 가리켜 ‘힘을 예비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도산은 “낙망은 청년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²고 하였다. 청년은 도산에게 있어 민족의 희망이요 꿈이었다. 도산에 의하면 학생은 누구든지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할 준비를 하는 인격체이다. 생존과 번영은 사람 활동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활동이 있으면 살고 활동이 없으면 죽는 것이며, 많으면 크게 번영하고 적으면 적게 번영할 것이기에 인류사회의 생존은 사람의 활동에 달려 있다. 활동할 무기를 준비함에 성공이 달려 있기에 이 무기를 예비하는 자가 학생이다. 대한의 학생은 먼저 대한사회로부터 세계 어느 사회이든지 나아가 활동할 자임을 명심하라고 했다.³

건전인격으로서 인격함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도산이 만든 청년학우회의 목적과 흥사단의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청년학우회의 목적은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으로 인격함양하고 단체생활훈련에 힘쓰며, 한 가지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예를 연마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매일 ‘덕, 체, 지(德, 體, 智)’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 삼는 충의남녀(忠義男女)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고, 덕 체 지를 동맹 수련하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⁵

이같이 도산은 인격함양 방법으로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정신과 덕육, 체육, 지육의 3대 육성을 제시하였다. 무실은 참되기를 힘쓰는 것이고, 역행은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며, 충의는 일을 함에 충실하고 사람 대함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용감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용기와 인내심으로 실천하는 지구력을 의미한다. 4대 정신체계에서 무실이 으뜸으로 4대 정신 전체를 포괄한다. 무실은 참되기를 힘쓰는 것,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 실질

1 주요한, 『안도산전서』, 흥사단출판부, 1999, 1018~1019쪽

2 위의 책, 「청년에게 부치는 글」, 547쪽.

3 위의 책, 「오늘의 대한학생」, 548쪽.

4 위의 책, 127쪽.

5 위의 책, 169쪽.

을 힘쓰는 것, 착실함에 힘쓰는 것, 실용을 힘쓰는 것 등 여러 복합의미이다. 역행, 충의, 용감은 무실에 포함된다. 또한 충의는 무실을 통한 인사 관계를 확충하고, 용감은 역행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⁶

청년 학우회 시대에는 무실, 역행 다음에 자강, 충실, 근면, 정제, 용감 등을 말하였다. 이후 흥사단이나 청년학우회나 무실, 역행, 충의, 용감으로 4대 정신을 삼아 중시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도산이 추구한 인격함양은 참 인간, 실천하는 인간이 그 핵심이다. 또한 3대 육성 방침은 덕육(德育), 체육(體育), 지육(智育)이다. 그런데 도산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지덕체의 순서를 바꾸어 '덕 체 지'의 순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도산의 교육관이나 인간관이 잘 표현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덕성, 지성, 감성, 욕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인간 본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계하고 갈등하면서 인간성을 이룬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덕성이다. 지식이나 기술은 도구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진다. 또 감성이나 욕망도 덕성의 절제를 받지 않으면 악으로 가기 쉽다. 도산이 덕성을 중시한 것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덕성 교육의 핵심이 진실이요 참된 가치이다.

무엇보다도 도산은 4대 정신과 3대 육성을 통해 건전한 인격을 함양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능력 있고 실천적인 사람을 형성하고자 했다. 도산은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건전한 인격과 함께 신성 단결을 제시하였다. 신성 단결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는 단결을 의미한다. 도산은 개인만으로는 민족이나 국가의 힘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민족공동체, 국가공동체의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뭉치고 단결해야 하는데, 오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큰 결함 중의 하나는 단결력의 부족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도산은 민족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단결 문제를 '대동단결', '통일', '신성 단결', '협동' 등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큰 힘을 얻으려면 전 국민의 통일을 규호 하여야 하겠소. 무력도 통일하고 금력도 지력도 통일하여야 하겠소. 각지 각 단체의 의사를 소통하여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각오를 가지게 함이니, 우리는 과거의 모든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가 될 결심을 하여야 되겠소.”⁷ 이같이 도산이 생각하는 단결은 무력, 금력, 지력 등 모든 분야에서 힘

6 황의동, 「도산사상에 관한 고찰」, 『학생생활연구』, 제11집, 청주대 학생생활연구, 1989, 46쪽.

7 앞의 책, 253~254쪽

을 모아야 민족적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단결이다. 도산은 이런 단결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 이해를 벗어나야 하고, 또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도산은 "합동하면 흥하고 분리하면 망하며, 합동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⁸고 말하며, 합동 여부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여겼다. 특히 도산은 우리 민족이 합동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병폐에 대해 이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 대한 민족의 개개인은 과연 합동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입니다. 남더러 합하지 않는다고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며 꾸짖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합동하더라도 적어도 몇 백만 명은 되리라 믿습니다."⁹ 도산은 이 합동, 단결 문제도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합동과 단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여겼다.

남들에게 단결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합동하더라도 몇 백 만 명은 될 것이라고 갈파하였다. 그는 합동이 왜 필요한가에 관해 이같이 설명한다. "사지와 백체(百體)로 이루어진 우리 몸으로서 그 사지와 백체가 분리하면 그 몸이 활동을 못하기는 고사하고 근본 되는 생명까지 끊어집니다. 이와 같이 각개 분자인 인민으로 구성된 민족 사회도 그 각개 분자가 합동하지 못하고 분리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민족 사회는 근본적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개 분자의 합동력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더 말할 여지조차 없습니다."¹⁰

도산은 우리 몸이 사지 백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기 흩어진다면 생명까지 위태롭고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하고,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저마다 흩어지면 민족 사회도 힘이 없어 사망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도산은 「동포에게 드리는 글」에서 합동에 있어서 민족 감정의 합동이 아니라 민족 사업에 대한 합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 이는 합동이나 단결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족 사업에 대한 합동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당면해서는 민족의 독립운동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족 번영, 민족 부흥의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앞의 책, 520쪽

9 앞의 책, 「합동과 분리」, 520쪽.

10 앞의 책, 521쪽

11 앞의 책, 521쪽.

도산은 합동과 단결을 위한 조건으로 먼저 신용을 언급하였다. 즉 서로 신용이 없으면 방침이 서로 같더라도 합동될 수가 없고, 서로 신용이 없으면 공통한 목적과 방법을 세우기부터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다.¹² 이처럼 신용은 단결과 합동의 기본 조건이며 전제조건이 된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목적이 좋더라도 신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동할 수 없다. 신용은 다름 아닌 믿음인데 이는 진실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도산은 단결이 변치 않고 깨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의리(義理)'를 제시하였다. 도산이 신성 단결의 조건을 '의리'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결이 이해관계나 '정의(情誼)'로 한다면 그 단결은 의를 위한 단결이고, '의'는 민족을 위한 일이다. 우리 민족에게 이로운 것은 선이고 정의이며, 우리 민족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고 불의라고 규정하였다. 도산에게 있어 합동이나 단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개인이나 파당을 위한 단결이 아니라 민족 이익, 민족 행복을 위한 단결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또한 도산은 단결을 위한 방법으로 '주인 정신'을 강조하였다. 1924년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문노니, 여러분이여!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라고 묻고, 이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나그네'라고 하였다.¹³

또 도산은 내가 요구하는 주인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가진 주인이라고 하였다. 주인 정신은 도산이 창안한 대표적 용어다. 그는 주인 정신이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의 단결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도산은 주인과 여객, 주인과 나그네를 비유해 설명한다. 그 민족 사회에 대해 영원한 책임감이 있는 이가 주인이고, 책임감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시적인 책임감이 있는 이는 '나그네'라 하였다. 어떤 민족 사회의 근본 문제가 주인이 있고 없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주인 되는 이가 너무 없다고 했다. 주인의식이 없었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주인 정신이 부족해 이완용으로 하여금 나라 팔기를 용납했다는 것이다. 주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민족 흥망, 사활이 걸렸다고 여겼다.

도산은 신성 단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의돈수(情誼敦修)를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다. 1926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글에서 정의돈수에 관해 논의를 전개했다. 먼저

12 앞의 책, 523쪽.

13 앞의 책, 「당신은 주인입니까」, 518쪽.

정의돈수의 개념을 이같이 정의한다. “정의(情誼)는 친애(親愛)와 동정(同情)의 결합이외다. 친애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귀여워 정으로 사랑함이고, 동정은 어머니가 아들이 당하는 고락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김 이외다. 그리고 돈수(敦修)는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 함이외다. 친애와 동정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잘 되도록 노력함이외다.”¹⁴

도산에 의하면, 정의는 친애와 동정을 합친 개념이다. ‘친애’는 어머니가 자식을 정으로 써 사랑함이고, 동정이란 어머니가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한다. 돈수는 정의를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노력한다는 뜻이다. ‘정의돈수’는 사랑하기 공부요,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것이다. 도산은 우리 대한 사회가 무정한 사회라고 이같이 규정한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이외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이외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케 하였습니다. 여러 백 년 동안을 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 왔습니다. 우리는 유정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 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일조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민족이외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情誼)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情誼)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 이외다.”¹⁵

도산은 한국 사회와 서양 사회를 비교해 정의(情誼)의 실상을 설명하였다. 한국사회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주의로 인해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공포와 두려움 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 항상 웃고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은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무정사회라면 서양의 사회는 유정사회이다. 도산은 정의돈수를 통해 무정사회를 유정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 첩경이 정의돈수에 있다고 여긴 도산은 이같이 제시하였다.

① 남의 일에 개의치 말라. 우리가 걸핏하면 주제넘게 됩니다. 남의 허물이 있으면 이것을 적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만 살피고 자기의 허물만 스스로 고칠 뿐이요, 결코 남의 일이나 허물에 개의치 말 것이외다.

14 앞의 책,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538쪽.

15 앞의 책, 539쪽.

- ② 개성을 존중하라.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장치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의 성격과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외다. 각각 남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기의 성격대로 가지는 것을 시인할 것이외다.
- ③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아무리 같은 동지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제 남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 다가 듣지 않는다고 동지가 아니라 함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외다. 서양 사람은 비록 자기 자녀에 대하여도 무엇을 시킬 때에도 '하겠느냐? (Will you?)'고 물어보는 의미로 말하여 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 ④ 물질적 의뢰를 하지 말라. 우리네의 친구들 중에 돈 같은 것을 달라는데 주지 아니하면 그만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에게 물질적 의뢰를 하지 아니함이 가하고, 설혹 의뢰 하였더라도 자기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의를 상할 것은 아니외다.
- ⑤ 정의를 혼동하지 말라. 부자, 부부, 친구, 동지의 정의가 각각 다른 것이외다. 부자간의 정의와 친구간의 정의가 같겠습니까? 또 같은 동지끼리라도 더 친한 사분(私分)이 있을 것이외다. 그러니 누구는 더 사랑한다고 나무라지 말 것이외다. 한다고 한 것을 그대로 안 한다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의를 확수 하는 것이 정의를 기르는데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 ⑦ 예절을 존중히 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친해지면 예절이 문란하여 집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무례를 범하는 것이 서로 친애하는 표시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례한 것으로는 친구에게 호감을 못 주고 도리어 염증을 발생시킵니다.¹⁶

이상 일곱 가지는 '정의돈수'를 위한 세부조건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개성을 존중하며 정의와 신의를 지키고 예절을 존중하라는 도산 가르침은 오늘날 인성교육 핵심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비슷한 점이 많다. 도산은 흥사단우의 가는 곳마다 정의를 펼치자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사활의 문제가 정의돈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의를 근본으로 삼으면 만사는 일어나고, 정의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하였다.¹⁷ 그리고 남의 환난을 볼 때 참으로 동정하는 이가 우리의 '흥사단우'라고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 '정의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살아 나가자고 '정의돈수'의 실천을 여러 측면으로 피력하였다.

도산은 이러한 맥락에서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16 앞의 책, 541~542쪽.

17 앞의 책, 543쪽.

우리 이천만이 다 사랑하기를 공부하자."¹⁸고 하였다. 도산이 얼마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도산은 정의의 공능에 대해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다."¹⁹고 하였다. 정의는 조직과 공동체에 활동과 용기를 주는 활력소라고 여겼다. 이같이 도산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 건전 인격과 신성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유교의 '수기치인'의 맥락과 흡사하다.

5. 재외한인동포와 문명의식

도산은 재외한인동포와 문명의식과 상관하여 문명혁신주의, 문명향상주의를 주장하고 재외한인동포와 연동시켜 인류의 공공행복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현대문명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인간 소통 문제를 중시하였다. 『도산 안창호전집』을 참고, '인류의 완전한 행복 구현을 위한 도산의 문명 의식을 고찰한다. 먼저 도산의 문명혁신주의이다. 근대 이후 문명은 식민팽창주의와 제국이데올로기와 관계하여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문명 개화 의지는 문명국가주의로 치달았으며, 이는 기술문명을 앞세워 낙후된 이웃 나라 조선의 침탈로 이어졌다. 특히 전통과 개화의 갈림길에 있었던 조선은 정신적인 문명을 동경하였다. 조선사회는 1880년에 이르러 문명개화에 눈을 뜨고 전통에 대한 문명혁신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선의 개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서세동점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 닥치자. 문명 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기운을 응집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 활동의 정신과 상관하여 거부하는 물결로서 당시 조선의 선교사 활동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농공상업의 변화가 물질적 풍요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문명개화는 정치혁신과 사회 제도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개안하도록 하였다. 문명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산은 여섯 가지 '마음의 병'으로 진단하였다.

이 병을 치유함으로써 나라가 문명혁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거짓의 병'을 치유해야 비로소 참된 문명혁신이 이루어진다. 거짓을 나라를 죽인 원수로 알았기에 모든 악의 근원으로 거짓을 송두리째 뽑아야 비로소 문명혁신의 길이 열린다.

둘째, '공리공담의 병'을 치유해야 급변하는 정세와 후천개벽 문명혁신에 대응할 수 있

18 앞의 책, 382쪽

19 앞의 책, 539쪽.

다. 집권층의 무사안일과 공리 공담의 병통으로 말미암아 허송세월 하느라 후천개벽 문명혁신에 속수무책이다.

셋째, 사회에 만연한 '불신풍조' 병을 치유해야 신용사회를 건설하고 문명혁신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흥사단 운동은 이러한 불신풍조를 퇴치하고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이다.

넷째, '비겁의 병'을 치유해야 대의를 앞세우게 되고 적은 이익에 굴신하지 않게 된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못한다면, 선대 선비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다섯째, 부질없는 '파쟁의 병'이다.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는 파쟁의 병을 앓아 국론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국가 존망과 안위의 위협으로 백성이 불안하였다.

여섯째, '무정의 병'이다. 이웃 간에 사랑이 식어 증오와 반목이 만연하기에 사회는 내일의 번영과 발전은 고사하고 재외한인동포에까지 무정의 병으로 외톨이가 되어 가기 쉽다. 문명혁신의 바람이 불어 K-pop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하기 위해서는 후천개벽 문명의 키를 재외한인동포들이 합심하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바람을 몰고 오고 그 바람이 재외한인동포에까지 폭 넓게 퍼져 나갈 때, 흩어진 모래가 아니라 뭉쳐진 병풍이 되어 조국 문명 잠재력을 신장하여 올려썬풍을 타게 할 수 있다.

특히 도산은 민족의 병을 여섯 가지로 집약한 명의로써 민족의 중대한 결함, 도덕의 병을 고쳐야 민족의 번영과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재외한인동포들까지 도산의 사상으로 다시 뭉치고 스스로를 다져 문명혁신에서 자기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도산은 문명향상주의에 근거한 인류의 행복을 염원하였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강제이주와 박해와 같은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경험에 초점을 둔 정치 고전 모형과 모국과 거주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개인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둔 사적 현대모형으로 분화되었다.

디아스포라의 주요 특징은 '가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초국가주의는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연결되어 상태'를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동성과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성과 연계성이 높은 상태를 초국가주의, 이동성과 연계성이 낮은 상태를 디아스포라로 구분한다.

재외한인동포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유대인과 같이 강제로 이주당하여 타지에서 압박을 받으며 모국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를 갖는 민족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자발적으로 이주해서 거주국에서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 이민자집단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대 이민자집단의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의 고전 개념에서 벗어나 확대된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진정 무엇이 디아스포라인지 혼란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가속화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국가적 생활 세계와 정체성이 확대되면서 디아스포라가 아닌 초국가주의로 현대적 의미의 이주와 정착, 정체성과 문명향상에 따른 변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재외한인동포의 디아스포라는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과 애착이 강한 이민 1세들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날과 달리 거주국에서 출생해서 모국에 대한 기억과 애착이 강하지 않은 이민 2세와 그 이후 세대에 관심을 갖는다. 2세대 이후의 디아스포라는 모국에서 형성된 기억과 정체성이 약하기에 모국으로 귀국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다. 이들은 거주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거주국 사회에 편입되고 인구와 권력 면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재외한인동포로 살아남기 위해서 동화는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재외한인동포는 거주국 사회의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신분상승을 추구하면서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의 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민 3,4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거주국 주류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인종, 민족과 혼인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질적 문명에 동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국가주의 접근이 지구화 혹은 세계화와 이질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경 가로지르기로 탈영토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제반 양상으로 나타난다. 초국가주의 접근은 국가적, 지역적 영토와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국경 가로지르기의 사회현상에는 분명한 영토적 선호도가 있고, 특정 목표나 초점이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초국가주의는 지구화 또는 세계화의 단선적 방법으로 진화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국경 가로지르기 과정들이 코즈머폴리터니즘, 혹은 증가하는 보편적 규범과 연관되지

않는다.

셋째, 초국가주의는 권리의 '보편화'라는 진보를 제안하지 않는다. 권리나 시민권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구로 확산된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전제가 없다. 초국가주의는 영역 내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다른 국가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연계(linkage), 초국가적 연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성(simultaneity)을 부각시킨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 지르는 사람, 제도의 상호작용과 다중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관계망에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공간과 시간을 압축시키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초국가적 활동의 범위와 빈도가 더 커진다. 이러한 선행조건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의 확립이다. 비록 이주자들이 초국가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수가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향후 그 수는 증가할 것이고 영향력도 점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강제로 모국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인 반면에 현대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스스로 모국과 거주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구분하는 축은 이동성과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다. 도산이 밝힌 문명향상주의에 근거한 인류행복 증진은 현대적 디아스포라 개념에 더욱 접근한다고 할 것이다. 인류행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비추어보더라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가 반드시 대치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재외한인동포의 생활과 의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기존의 사회 정체성 이론이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이를 초국가적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발전시켜 어떻게 유학, 이민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긴밀한 외국문화와의 접촉이 개인의 정체성을 민족과 국민의 수준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수준으로 확장하는가를 고찰하고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또한 모국 정치참여와 거주국 정치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재외한인동포에 적용해서 재외국민선거와 거주국의 주류 정치 참여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행복지수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산이 밝힌 문명

향상주의에 근거한 인류행복 증진은 고전적 디아스포라와 현대적 디아스포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보다 폭넓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산은 문명에 대한 혁신주의와 향상주의 두 축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문명의 혁신적 혜택을 재외한인동포가 수혜를 받게 되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강제 이주가 아니라 스스로 이민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재외한인동포들도 인류행복 증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것이다. 근대화가 부국강병의 꿈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도산은 근대문명을 혁신해야 하고, 끊임없이 향상 일로의 길을 가도록 도산정신 바탕의 새로운 융합 지평을 제시하였다. 스스로 이민을 선택하는 재외한인동포에게는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위해서라고 도산의 문명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통찰을 각자의 입장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재외한인동포와 원리원칙

최근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으로 '겸허'를 들 수 있다. '겸허'는 공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삶을 비추는 영성으로 깨우침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다스려 행동하며 상대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자세를 잃지 않도록 계승함을 뜻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겸허' 정신이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자신의 재능을 포장하고 사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도산의 '일심일언(一心一言)'은 대공(大公) 정신으로, 사리사욕을 벗어나 겸허하게 살아감이다. 도산은 일심일언의 대공(大公) 정신에 무실역행을 기반으로 실천하며, 정진덕목으로 자기혁신을 꾀하고 인생을 살며 부닥치는 다양한 사련을 능소능대하게 극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돈독하게 하려면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격함양을 위해 수양하며 자신을 경영할 필요가 있음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극기심을 발휘함으로써 망각한 '겸허'를 회복하고,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실천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을 갈고 닦는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키워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재외한인동포들은 도산의 '대공주의' 의식으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일깨우고 매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고 할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하면서 강제 이주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이민자가 늘어가면서 유태인의 디아스포라 방식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탈 국가적인 국제 경영 마인드가 요청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파견

된 리더이면, 현지인 매니저로부터 현장이 담당자까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요청된다. 현지의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상통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구나' 라고 여길 정도의 매력을 지닌 리더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리더는 인종과 언어, 세대의 차이, 역사와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서로 화합을 이루면서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더로서 살아가는 인생 항로는 험난할 수도 있다.

도산의 정신을 오늘에 살려 그 길을 가도록 성심을 기울이고 타고난 각자 재능을 살린다면, 한국을 떠나 사는 외로움도 일시적 아픔이 되기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참된 리더로서의 사명과 자각을 쏟으면, 자신도 모르게 도산의 사유 방식을 오늘에 살리고 공유할 수 있다. 조직 화합을 위해 세대를 넘어선 도산정신과의 공명을 통해 우리는 도산이 염원하던 인류 행복을 구현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이처럼 도산 사상은 미래의 꿈을 안고 전진하려는 재외한인동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다. 그의 경영철학이 재외한인동포들에게 실천 가치를 발휘할수록, 성공을 거둔 이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도산사상은 위대한 업적과 삶의 결실을 맺도록 과거에서 미래로 매개하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만큼 움직이기 쉽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 우리는 도산사상을 통해 민족 구성원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뢰감을 잃어갈 때, 민족전체의 비극으로 망국의 아픔을 겪게 됨을 경험하였다.

재외한인동포의 마음이 이방인과 더불어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항상 자신의 손해로 다가온다는 냉혹한 삶의 궤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게 된다. 도산사상은 신용을 쌓아가는 인간관계 형성에 기반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상대방부터 신뢰를 쌓고, 인격함양까지 돈보인다면 신뢰를 넘어서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도산의 인격이 재외한인동포들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상관연동 관점에서 가슴에 새길 만한 '대공주의' 일심 일언을 일상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진덕목, 시련극복, 무실역행, 인격함양, 문명의식으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어제의 감동이 오늘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잠시라도 자신을 의식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금세 욕망이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이다. 재외한인동포의 원리원칙을 세우고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기 쉽

상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도산의 인격이 남기고 간 삶의 궤적을 참고할 수 있다. 항상 성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성자계(自省自戒)' 하는 것도 나약한 존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외한인동포의 원리원칙 가운데 요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겨레얼을 빛낸 역사인물 100 인』 경인문화사, 2008.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분도출판사, 2003.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6.

길희성, 『영적 휴머니즘』, 아카넷, 2021.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삼인, 2015.

김 구, 『백범일지』, 우선문화사, 1984.

김아연, 「홍언의 '도산의 꽃동산' 소재 시가 연구」 『인문과학』 80, 2021.

김용환, 「담헌의 생태적 실심(實心)」, 『유교와 종교학』, 서울대출판부, 2009.

김용환, 『도덕적 상상력과 동학의 공공행복』, 모시는 사람들, 2012

김용환, 「선비정신과 대동사회」,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동아문화사, 2014.

김용환, 『한국윤리교육 백문백답』, 좋은 기업 위드, 2016.

김용환,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좋은 기업 위드, 2018.

- 도산기념사업회 편 『안도산전서 상중하』, 범양사, 1990.
-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1947.
- 도산사상연구회,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학문사, 1995.
-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 흥사단출판부, 2004.
- 안병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안창호』, 한국사론』 10, 1981.
- 안진호 역해, 『절요』, 법륜사, 1976.
-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장대익 옮김,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11.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9.
- 이지원,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문화운동론의 성격」 『국사관논총』 51.
- 장규식, 『도산 안창호의 민족주의와 시민사회론』, 도산사상연구』6, 2000.
- 장리욱, 『도산의 인격과 생애』, 대성문화사, 1970.
- 정재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대출판부, 2014.
-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71.
-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2013.
- 홍일식, 『나의 조국 대한민국』, 동서문화사, 2014.

저자 약력

1975-1989 서울대 학사, 석사, 철학박사

1987-2020 충북대 윤리교육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3-1994 프랑스 소르본 대학 단독연구교수
1995-1997 충북대 대학신문사 주간 교수
1997-1998 충북대 기획연구실장
1998-1999 캐나다 밴쿠버 U. B. C. 공동연구교수
2007-2009 충북대 출판부장
2011-2012 한국윤리교육학회장
2013-2014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공동연구교수
2014-2015 단군학회부회장
2023-현재 조지워싱턴대학 연구교수

주요저서

『자아각성과 윤리』, 법인문화사, 1992.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명상』, 충북대출판부, 1997.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열화당, 1998.
『현대사회와 윤리 담론』, 충북대출판부, 2003.
『종교와 역사(공저)』, 서울대출판부, 2006.
『겨레얼 살리기 I ~ III(공저)』, 윤일문화사, 2007.
『겨레얼을 빛낸 역사인물 100 인(공저)』, 경인문화사, 2008.
『한류와 한사상(공저), 모시는 사람들, 2009.

- 『유교와 종교학(공저), 서울대출판부, 2009.
- 『100 Korean Heroes and Heroins(A co-author), Oriental Light, 2009.
- 『세계윤리교육, 충북대출판부, 2010.
- 『한국철학사전(공저), 동방의 빛, 2011.
- 『도덕적 상상력과 동학의 공공행복, 모시는 사람들』, 2012.
-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동아문화사』, 2014.
- 『영성인문학 토대의 윤리교육』, 좋은 기업 위드, 2018.
- 『장수시대 장수윤리』, 충북대출판부, 2019.
- 『문화세계의 창조와 세계시민』, 한국학술정보, 2020.
- 『동아시아의 공통가치를 찾아서, 권 I ~IV(공저)』, 동양일보 동양포럼, 2021.
- 『사랑하며 웃으며(현대시조)』, 현대시학, 2021.
- 『행복하며 깨치며(현대시조)』, 현대시학, 2022.
- 『영성충만의 명상시 치유힐링』, 동연, 2023.

도산 사상의 실천적 방안

이돈성

들어 가는 말

도산 사상의 핵심은 개혁 개몽이다. 도산 사상의 실천은 현대 교육 탈 봉건 제도. 자주 독립으로 요약 된다. 국 내외 여러 사람들이 노력 하여 자주 독립은 하였지만 많은 영토를 잃어 버리고 나라는 두동강이 났다.

시대는 변한다. 배가 항해를 하듯 주위 환경에 따라 방향은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지는 변할수 없다. 우리는 동양 최초의 국가 조선(朝鮮)이란 이름을 유지 하고, 개천절(開天節) 행사를 치루고 있다. 항해사의 목적지가 분명 하듯 우리는 민족의 혼을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단군 왕검을 살해한 중원 세력은 우리 역사를 뿌리체 파 해쳐 놓고 동북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인접국가 세력에 몰려 은패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일이 첫째요 이를 온 세상에 알려 줌이 두 째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도산의 말씀)

도산이 살아 계신다면 이러한 과정을 밟아 유유히 흘러온 조선 (朝鮮)의 뿌리를 찾아 오늘에 이른 과정을 온 세상에 알리자고 외치실 겁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은 유불선 (儒佛仙)이다. 고려 시대 이후 불가의 가르침은 등외시 되었다. 모화사상에 잠든 한국 사학계는 반일을 부르짖는 재야 사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중원 세력은 꾸준히 동북 공정을 실행하고 있다. 대학에는 시진핑(習近平)관 까지 설치한 현실이다.

원시 불교의 탄생과 전래에 동북아 역사가 있다. 전국시대에 금미달(今彌達)에서 유래된 미륵(彌勒)이란 글자다. 미륵(彌勒)이 다루던 영역을 미지(彌地)라 했다. 안문관을 지키던 왕이란 뜻에 두루미(彌)를 기러기(鴈 雁)로 바꾸어 궁홀산 (弓忽山)에 안문관(雁門關)을 지었다. 오늘의 산서성 (山西省) 대현 (代縣) 안문산(雁門山) 중 요새에 살던 지도자를 중원 사라들은 고죽군 (孤竹君)이라 했고, 불가에서는 [안왕(雁王) 또는 아왕 (鵝王) 즉; 내가 삼족오 (三足烏)를 숭상 하는 지역 사람들의 왕]이라 했다.²⁰ 금미달을 떠난 사람들이 발해만으로 나와 동남아 해안을 따라 수천리에 흐터져 신미제국(新彌諸國) 20 여국이 나타났다. 가야국 가실왕(加耶國嘉悉王)의 후손이 해운업을 하는 큰상인 (大商主僧伽)으로 인도 동남 해안에 있는 섬나라 승가라국(僧伽羅國), 즉 세일론에 이르러 원시 불교를 전래 하여 미륵신앙(彌勒信仰)이 나타났다.²¹

사기에 실린 미지 수천리(彌地數千里)란 문구와 삼국사기 첫장 궁예시조 (弓裔始祖) 성박씨 (姓朴氏)란 글자를 풀이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몰라 왜왕 비미호(卑彌呼)가

²⁰. [東觀漢記](#) : 章帝元和二年，三足烏集沛國。三年，代郡高柳烏子生三足。

²¹. [가야국 가실왕\(加耶國嘉悉王\)이 마지막 단군이다.](#)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신라 아달아 이사금 (阿達羅尼師今) 에게 사신을 보냈던 사실을 오늘의 경상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고 오인 하듯, 고조선의 발생지를 몰라 기자묘(箕子墓)를 평양에 세웠었고, 지금은 단군(檀君)능을 세웠다.

성경에 유태인의 역사가 실려 있듯, 유가(儒家)기록 이외에 경외(經外書) 또는 위서(僞書)라고 부르던 각종 기록과 불교경전에도 동북아 상고사가 숨어 있다.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연유로 동북아 역사속에 있는 한국 상고사를 옳바로 연구 할수 없다. 도산이 살아 계셔서 한국 사학계의 현황을 보신다면 청나라 강희황제가 만주족의 유래를 찾아보라 지시 했듯이 우리 민족의 근원을 찾아 보라고 재미 지식인들에게 부탁하시리라 본다.

토론(討論) 여러사람 의견 듣기

언행(言行)은 사람의 품격이요, 역사는 민족의 혼(魂)이라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혼(魂)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구자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같은 분들이 미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듯이, 재미 교민들이 [동북 아시아 상고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중역을 맡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몽이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산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 가르쳐야 할 소재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의문점을 찾아 해결하는 연구를 하라고 당부 하실겁니다.

필자는 처음으로 출판한 영문본에서 [College of William and Mary to Johns Hopkins University]를 비교하여 설명 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은 지식을 신대륙에 정착한 후손들에게 가르치던 시기를 지나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신대륙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합당하게 설명하는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연구 중심의 대학이 나타났다고 설명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키자.

인접국가 세력에 몰려 은패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밝혀 세상에 알리면 한자 사용법을 모르는 절대 다수의 외국인 학자들이 따르게 됩니다.

도산 사상의 핵심은 개혁 개몽이다. 개몽이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의 함이 개몽이다. 그 후에 교육 실천개혁이 나타나야 한다.

개혁은 항해사가 방향을 바꾼다는 뜻과 같이 목표를 확실히 정해 놓고 바꾸어야 한다. 항해사의 목표는 민족의 혼이다. 혼을 잃은 지도 모르고 잠자는 사름들을 잠속에서 깨워야 한다. 이길이 오늘의 개몽이다.

조선(朝鮮)이란 글자의 유래를 보면, 예맥(濊貊, 意在斯)족이 사는 땅에 뜻이 있어 흥산 문화권에서 내려와 글자를 만들어 동북아시아 상고사에 종주국으로 등장 했었다는 근거가 중국 문헌 여러곳에 있다. 무쇠 라고 부르던 철(鐵鑠鐵)이란 글자에, 예맥 부여(濊貊, 夫餘)란 글자속에 중원을 석권 했었다는 뜻이 있다.²²

²². [부여의 시말: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 북부여기에 나온 단군은 누구인가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발기\(拔奇\)가 부여왕위구대\(尉仇臺\):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오늘도 무쇠란 낱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하고 굳센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당나라 불교 스님들이 만든 법원주림(法苑珠林)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 양거(儻佉; 晉陽을 떠난 사람)가, 범서(梵書) 다음 창힐(倉頡) 이전에, 글자를 만들었다는 문구가 있다.²³

신라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가서 문주스님으로부터 불법을 배울 때(文殊授法)신라 골품제의 유래를 동이족 공공(東夷共工)의 후세와는 다르다고 했다. 동이(東夷)가 문자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좋은 철기를 만들어 중원을 석권한 발조선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를 중원 사람들은 춘추 전국시대라 한다.²⁴

중국의 사가들이 우리의 상고사를 왜곡 했다는 단서는 여러 곳에 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유림열전에 백여만언(百餘萬言)을 바꾸었다고 실토 했다.²⁵ 당나라에 유학 했던 최치원(崔致遠, 857년 ~ 908년?)은 [한때 고구려와 백제가 중원을 석권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민족의 혼을 지키려고 일연(一然, 1206년 ~ 1289년) 스님은 삼국유사를, 이승휴(李承休, 1224년 ~ 1300년)는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이암(李嶽, 1297년 ~ 1364년) 선생은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남겼다. 권근(權近; 1352년~1409년)의 응제시(應製詩)에도 단군신화가 실려있다.

²³. [康熙字典](#): 佉 : 《法苑珠林》造書凡三人，長曰梵，其書右行。次書佉盧，其書左行。少者倉頡，其書下行。見《唐書·異域志》又神名。《釋書》佛說彌勒成佛經，其先轉輪聖王，名儻佉。有四種兵，不以威武，治四天下。又《陀羅尼經》佉佉。《註》文殊眷屬。《又》佉佉佉佉。《註》普賢眷屬。◎按佉，梵音去佐切，見就形門。今不從，只以音和門，丘伽切，釋之爲是。

²⁴. [三國遺事](#) : 善德王代。

貞觀十年丙申。慈藏法師西學。乃於五臺感文殊授法詳見本傳文殊又云。汝國王是天竺剎利種。王預受佛記。故別有因緣。不同東夷共工之族。然以山川崎嶇故。 [고조선의 황금시대-1. 동이\(東夷\)가 철 만드는 기술을 개발](#):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²⁵. [後漢書](#): 逵所著經傳義詁及論難百餘萬言，又作詩、頌、誄、書、連珠、酒令凡九篇，學者宗之，後世稱爲通儒，世主以此論學，悲矣哉。 가규賈逵(賈逵 174年—228年) 與班固、賈逵共述漢史，傅毅等皆宗事之。 부의(傅毅 ? . -90年)

이는 모두 송나라 사신과 같이 왔던 서금을 접대 했던 김부식(金富軾, 1075년 ~ 1151년) 이후 사람들이다. 이 분들이 인용한 단군에 관한 예기는 스님이 인용한 위서 내용(魏書云)을 근거로 작성 했다고 본다.

위서 내용(魏書云)은 맹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양혜왕 (孟子見梁惠王) 무덤이 도굴되어 우(帝禹)의 아들 개(帝啟)가 단군왕검 백익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²⁶ 양혜왕이 여러 사서에 다른 이름으로 적혔고, 생물 연대 또한 혼잡 하게 설명 했다.²⁷ 논형에는 양혜왕(梁惠王)이 자신을 멀리서 온 늙은이 수(叟)라 했다. 이글자에서 독사(serpent)라고도 풀이하는 수유(須臾) 사룡(蛇龍)이란 글자가 나타났다.

급총의 무덤 주인 또한 여러 글자로 기록 했다. 그러나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의 고향에 백충장군 현령비(百蟲將軍顯靈碑)를 세웠다. 비문에는 백익(伯益)이 전욱 고양씨의 두째 아들이고, 성은 이씨(伊氏) 휘가 익(諱益), 자는 퇴개 (字隲叟)라 했다. 실권을 잃은 사람이란 있는 글자다.²⁸ 그가 납평(臚平)절을 시작 했다.²⁹ 이씨(伊氏)의 본향은 한핵에 실린 양산(梁山) 서쪽 낙수(洛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저 늙은이란 뜻에 이기씨(伊耆氏)라

26. [孟子](#) 梁惠王上: 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鴈麋鹿, 曰: 「賢者亦樂此乎?」[論衡](#) 刺孟: 孟子見梁惠王。王曰: 「叟! 不遠千里而來, 將何以利吾國乎?」孟子曰: 「仁義而已, 何必曰利?」[史記](#) 樂書: 故君子不可須臾離禮, 須臾離禮則暴慢之行窮外, 不可須臾離樂, 須臾離樂則姦邪之行窮內。故樂音者, 君子之所養義也。

27. [史記](#) 樂書: 太史公曰: 夫上古明王舉樂者. 夫禮由外入, 樂自內出。故君子不可須臾離禮, 須臾離禮則暴慢之行窮外, 不可須臾離樂, 須臾離樂則姦邪之行窮內。故樂音者, 君子之所養義也。

28. [益乾啟位, 啟殺之](#)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水經注](#) 伊水:

又有《百蟲將軍顯靈碑》, 碑云: 將軍姓伊氏, 諱益, 字隲叟, 帝高陽之第二子伯益者也

晉元康五年七月七日, 順人吳義等建立堂廟, 永平元年二月二十日, 刻石立頌, 讚示後賢矣.

29. [단군왕검\(壇君王儉\)은 실존 인물이었다. The legendary Dangun Wanggeom was a real person](#)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납일 \(臚日\):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했다. 이씨가 사는 마을을 지나는 여울이라 이수(伊水), 그가 실권 했다 하여 낙수(洛水)라 했다.

한후에 실린 “奕奕梁山、維禹甸之、有倬其道”란 문구는 한후의 선조를 우왕이라 했다. 그곳에 중원 세력의 노예로 일하던 단군 왕검 백익(伯益)의 추종자 예맥 사람(濊貊: 斯, 隸. 隸書; 斯, 離也)들이 사천성을 지나 운남성을 거쳐 히말리아 산맥 동쪽에 이르러 원시 불교가 나타났다. 그 곳을 신자촌(Sinja Village)이라 하여 UNESCO 에 등록 되었다.³⁰ 옛적에 사천성을 백익의 이름자를 따서 익주(益州)라 했다.

단군조선 마지막 단군이 아사달에 돌아가 산신이 되었다는 금미달 “弓忽山 今彌達”에 관한 기록은 전국시대에 발생 했던 사건이다. 그 당시 그 지역은 주인이 자주 바뀌었고,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라 더더욱 혼잡 하다. 필자는 역사란 모든 인문 사회과학의 모체라고 정의하고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인용하여, 중원 사가들이 춘추필법으로 은밀 하게 숨겨 놓은 기록을 불가기록과 고려가요 가시리, 민요 아리랑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궁홀산 (弓忽山)이 오늘의 안문관 일대라고 논증 했다.³¹

당현장(玄奘) 법사가 17 년(629 년~645 년)간의 서역 견문을 실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汝子我之族也。斯人者我之族也 ”란 문구가 있다. 지존, 즉 석가모니가 예맥(斯: 濊貊; 夫餘國名)족의 후손 이란 뜻이다. 미륵(彌勒)이 무슨 뜻이란 설명도 있다. 많은 고대언어가 원시불교 발생지에 남아 있다. 금미달을 떠난 사람들이 동남아 해안으로 흐터져 신미제국 (新彌諸國)여러 나라가 나타났다. 남조 역사서에는 이를 왜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라 했다. 그들이 상인 (大商主云僧伽)으로 해상로를 따라 불교 국가 승가라(名僧伽羅)국이라 부르던 스리랑카(Sri Lanka, Ceylon)에 이르러 원시불교 와 금미달 지역 토속신앙이 융합한 미륵신앙(彌勒信仰)이 나타났다. 승가라란 미륵으로 기록된 마지막 단군, 즉 가야국 가실왕(加耶國嘉悉王)의 후손이란 뜻이다. 삼한

³⁰. [Sinja Valley - Wikipedia](#). [Sinja Rural Municipality - Wikipedia](#)

³¹. [고조선\(古朝鮮. 故\)의 수도: 아사달 \(阿斯達\) 금미달\(今彌達\)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http://mapp.koreatimes.com/article/20240206/1500889.](#)

사람들이 남방 불교를 한반도와 일본에 전했다.³² 당서역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나라 정화 (鄭和, 1371 년 ~ 1434 년)제독이 점령 했다]는 기록으로 접붙였다.³³ 통전에 [관구검의 공격으로 고구려 동천왕이 요동반도로 피란을 갔다가 떠나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신라]가 되었다는 기록 또한 통일 신라 초기 기록을 그렇게 접붙였다.

글자 작란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훈고학이 끝났다는 당나라 이후, 송 나라때 기록 또한 다를바 없다. 서경 (徐兢, 1091 년 ~ 1153 년)이 돌아가 1123 년에 고려 방문기, 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을 황제에게 바쳤다. 마땅히 있어야할 지도는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시조 왕건이 남만주 현도군(玄菟州都督)에서 건국했다는 사실이 은밀 하게 실려 있다.³⁴ 같은 내용이 송사 (宋史)에도 실렸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금미달 궁홀산 에서 내려 온 사람이라 궁예시조 (弓裔始祖) 성 박씨(姓朴氏)라고 밝혔다.³⁵ 신라 말기에 후고구려 왕이라 자칭한 궁예(弓裔) 또한 금미달 지역 궁홀산(弓忽山)에 살던 지도자의

³². [Origin of Tibetan Buddhism-미륵신앙의 유래](#)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³³. [大唐西域記](#):

商主僧伽. 僧伽羅國. 古之師子國. 又曰無憂國. 即南印度. 其地多奇寶. 又名曰寶渚. 昔釋迦牟尼佛化身名僧伽羅: 皇帝遣中使太監鄭和. 奉香華往詣彼國供養. 鄭和勸國王阿烈苦柰兒. 敬崇佛教遠離外道. 王怒即欲加害. 鄭和知其謀遂去. 後復遣鄭和往賜諸番. 拜賜錫蘭山國王王益慢不恭. 用兵五萬人刊木塞道. 分兵以劫海舟. 會其下預洩其機. 鄭和等覺亟回舟

³⁴. [宣和奉使高麗圖經](#):

王氏之先蓋高麗大族也當高氏政衰國人以建賢遂共立為君長後唐長興三年遂自稱權知國事請命于明宗乃拜建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封高麗王晉開運二年建卒子武立漢乾祐末武卒子昭立. [宋史](#): 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 遣使朝貢, 以建為玄菟州都督, 充大, 封高麗國王.

³⁵. [三國史記 新羅本紀第](#): 弓裔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 一曰正月十五日. 即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為六村 北原賊帥梁吉, 遣其佐弓裔, 領百餘騎, 襲北原東部落及溟州管內酒泉等十餘郡縣.

崔致遠進時務一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為阿●弓裔自北原入何瑟羅, 衆至六百餘人, 自稱將軍.

후예란 뜻이 있다. 산적 궁예가 자리잡은 곳이 패강도 (溟江道) 라 했다, 산해관 연안 이란 뜻이다.

원나라 역사서에는 지나(支那) 라고 부르던 중국 남쪽에 신라 가라 백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실려 있다. 운남성에는 신라 가라의 자치주도 있었다. 십육국 시대 남조 역사서에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실린 신라 임나 가라(新羅, 任那 加羅)와 같은 글자가 실렸고, 같은 글자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세 지역에 나타난 이름자의 상관 관계를 아무도 합당하게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사가는 물론하고 한국 사학계에서도 중원의 그늘 밑에 옳바른 풀이를 못하고 영토 마저 점차로 빼앗긴 수치를 당해 왔다. 모두들 이를 "지정학적"이란 술어로 그 사정을 설명 한다. 필자가 볼때는 마치 해가 지구를 돌아 새날이 온다고 오랫동안 인식 했듯이, 중국사람들이 조작한 동북아 상고사를 잘못 인식한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좁은 시각에서 풀이 하여 이러한 오류가 나타났다.

지정학의 핵심 요인: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이다. 핵심 요인은 교류와 의사 소통이다.

옛적에는 큰 산맥과 강을 국경으로 했다. 교류에 불편을 느껴서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을 찾아서는 그러한 자연 장애를 극복 하고 교류를 했다는 사실이 스리랑카 역사에 승가라국(僧伽羅國) 이란 이름이다. 홍산 문화권 에서 분수계곡을 따라 소금을 찾아 산서성 해지(解池)에 이르렀고, 차마고도를 따라 히말리아 동단에 이르렀다. 뱃길로는 해안을 따라 동남아 여러 곳에 이르렀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문물 교류의 양상이 바뀌었다. 자연적 장애물을 지나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실천 되고, 해양을 건너 좋은 값에 많은 물량을 구입 하여 수만리에서 운송해 오고 있다.

부여씨가 동양의 페니키아(Phoenician)인 으로 해양을 석권 했다.

지중해를 페니키아인이 개척 석권하듯, 동아시아 해안을 오랫동안 부여씨가 통치 했다.

금미달 쌍간하 연안에서 나타난 북부여(北扶餘, 夫餘, 기원전 4 세기~494 년)에서 삼한(三韓)이 나타났다. 부여씨가 바다를 건너 여러 나라를 세워 이를 백제라 했다. 광운에는 중원에 자리잡은 부여씨의 유래를 왕성하게 중원에 퍼져 살았다는 뜻이있는 글자로 예맥 족으로 설명 했다.³⁶ 지나라고 하는 남쪽에는 오랫동안 신라 백제 가야 왜가 있었다. 광운 여(廣韻 余)자 설명에는 [여“余我也”는 나]라 했다.

금백제왕 부여씨 (今百濟王夫餘氏)란 문구는 송나라가 “廣韻”을 만들던 시절 중원에 있었다. 부여씨가 넓은 바다 해상권을 장악 했다 하여 한해(瀚海, 翰海)라 했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金可記, 新羅人也”라 출처를 “續仙傳”이라 했다. 흥부-놀부의 원전이라 한다. 이렇게 중원에는 오랫동안 삼한의 후손이 살았다.

부여씨가 대륙백제를 건국했다. 수서(隋書)에 실린 백가제해 (百家濟海)를 간략한 글자다. 백제 전성기에는 큰바다 동서 연안에 수도를 두었다. 중국 동쪽 바다를 한해라고 했다. 삼한 (三韓)이 다스리던 바다를 음이 같은 글자로 바꾸어 날개를 퍼다는 뜻의 글자 한해(瀚海, 翰海)라고 기록 했다.

오호십육국 남북조 시대 말기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 하던 시절(平陳之歲)에 전함이 백제 영역이 었던 대만섬 탐모라국(射牟羅國)에 표류 했다. 그 섬을 남북이 천리 동서가

³⁶. [廣韻](#) 穢:

澌：澌貊夫餘國名或作獫狁又汪澌。獫：𪚩音穢。《廣韻》本作澌，澌貊，夫餘國名。或作獫。《集韻》通作穢穢。○按《廣韻》《集韻》《類篇》俱書作穢。 [廣韻](#) 余：余我也。

餘：殘也，贖也，皆也，饒也，又姓晉有餘顛又漢復姓三氏晉卿韓宣子之後有名餘子者奔於齊號韓餘氏又傳餘氏本自傳說說既爲相其後有留於傅巖者因號傳餘氏秦亂自清河入吳漢興還本郡餘不還者曰傅氏今吳郡有之風俗通云吳公子夫概奔楚其子在國以夫餘爲氏今百濟王夫餘氏也

수백라고 자세히 기록 했다.³⁷ 이를 후세 사람들이 글자를 바꾸어 제주도라 했다. 한국에서는 일차 사료는 무시하고 후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인용하여 분명한 대만섬을 제주도라고 기록 했다.³⁸

중국 24 사 중에 속하는 수서(隋書)와 같은 사가 당 나라 이연수가 남긴 남사(南史)와 북사(北史) 그리고 통전에도 실린 뚜렷한 사실을 은폐 하여 미륵 신앙을 믿고, 신라 백제 가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만섬에 살았다는 사실을 은폐 했다. 대만섬에는 아리랑의 어원이 되는 아리산(阿里山)이 있다. 서공은 대만섬 높은 산을 봉래산(蓬萊山)이라 했다. 손권이 보냈던 육손이 이주(夷州及朱崖)원주민으로 부터 [그들은 불사초를 구하러 갔던 사람들의 후손] 이란 예기를 삼국지에 남겼다.³⁹

중국 대륙 에서 쫓겨 대만섬에 정착 했어도 중화 사상을 지켜오는 대만인은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한반도 북부가 중원 세력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라 백제 왜 일본(倭, 日本)과의 관계:

진수가 금금미달(今彌達) 지역 호타하 연안에 살던 세 지도자 삼감(三監)이란 뜻을 삼한(三韓)이란 명칭을 만들고 높은 지도자(큰 가한 Kahan)란 뜻을 비하 음차 하여 적을 소다 왜(倭; wēi wō wǒ; 魏, 微: 汗[hán])로 기록 했다. 글자를 바꾸었다는 근거가 삼국지 왜인전과 단석괴전에 한국(汗國)을 공격하고 한인(汗人) 수천명을 잡아갔다. 동이전에는

³⁷. [隋書](#): 平陳之歲,有一戰船漂至海東舩牟羅國,其船得還.其南海行三月,有舩牟羅國,南北千餘里,東西數百里,土多羣鹿,附庸於百濟.明年,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度百濟,行至竹島,南望舩羅國,經都斯麻國,迴在大海中.又東至一支國,又至竹斯國,又東至秦王國,其人同於華夏.

³⁸. <https://www.ancienthistoryofkorea.com/silla-from-zhinasouthern-china-to-korean-peninsula/>

³⁹. [三國志](#) 陸遜傳:陸遜字伯言,吳郡吳人也.本名議,世江東大族.權欲遣偏師取夷州及朱崖,皆以諮遜,遜上疏曰:「臣愚以為四海未定,當須民力,以濟時務。」[한해 따라 二萬里-5: 누가 언제 한해를 처음으로 건넜나-보충: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원시 불교가 중앙 아시아를 돌아온 전래 경로에 왜(倭)자가 실렸다.⁴⁰ 같은 내용을 태평어람에는 왜(倭)인전에 실었다.

이 왜(倭)자가 신라 백제 임나 가라와 같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실렸고, 중원의 동쪽 해안을 따라 흐쳐져 나가 왜왕이 다스렸다는 기록이 여러 남조 역사서에 실렸다. 이들이 모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 하던 시절에 한해(瀚海)를 건너 동쪽으로 와 수나라에 듣기 불쾌한 문구를 보냈다.

부여씨가 대륙에서 밀려나 수나라에 보낸 서한에 “해뜨는 나라 천자가 해지는 나라 족하에게” 하는 문구에서 나타났다. 화가난 수양제 가 609 년에 사신으로 처음으로 한해의 남단 항로를 따라 백제를 대만섬(躡牟羅國)을 지나 죽도를 돌아 낙동강 하구 김해를 거쳐 구주를 다녀 왔다.⁴¹

문무왕 10 년 (671/1/17) 봄에 왜(倭) 가 이름을 일본 으로 바꾸었다(倭國更號日本) 는 통고를 하고 701 년에 당나라에 알렸다.⁴² 위징이 대만섬을 묘사 했던 같은 이름에서 한자 빼고 담라국 (躡羅國) , 수로왕이 통치했던 김해를 도사마(都斯麻), 즉 백제 무녕왕(武寧王;462 년~523 년)의 수도라고 했다. 그를 양무제 (梁武帝)가 521 년에

40. [三國志](#) 鮮卑傳: 聞汗人善捕魚, 於是檀石槐東擊汗國, 得千餘家, 徙置烏侯秦水上, 使捕魚以助糧。

至于今, 烏侯秦水上有汗人數百戶. [太平御覽](#) 倭:

《魏志》曰: 倭國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為國, 舊百餘小國。漢時有朝見者,

今令使譯所通共三十國。又渡海千餘里, 至未盧國, 戶四千, 濱山海居, 人善捕魚, 水無深淺皆能沉沒取之。

[後漢書](#): 烏桓鮮卑列傳: 聞倭人善網捕, 於是東擊倭人國, 得千餘家。

41. [隋書](#): 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躡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 奉表賀平陳使者言倭王以天為兄, 以日為弟, 天未明時出聽政, 跏趺坐, 日出便停理務, 云委我弟。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躡羅國, 經都斯麻國, 迴在大海中。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為名。裴清使於倭國。

[倭國](#): 百濟皆以倭為大國, 恒通使往來. [通典](#): 倭國一名日本, 在中國直東; 扶桑國復在倭國之東. 蓋近於日出處。

42.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六: 土星入月。京都地震。中侍智鏡退。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為名。

특절도독 백제 제군사 녕동 장군(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에 봉했다. 그 당시 백제가 한해의 동서 연안을 통치 했다는 뜻이다.

중원 사람들이 한해(瀚海)의 동쪽을 탐방한 첫 기록이 수서에 있다. 그에 백제와 신라 여러 나라가 왜를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당시 수나라가 동번기(隋東蕃風俗記云; 대만섬 방문기)를 만들어 양나라 때 부터 그 섬에 있던 신라 왕실의 유래를 남겼다. 수서에는 가야국(加耶國)을 떠나 멀리서 왔다는 뜻에 불가에서 쓰는 글자로 가라(迦羅)라고 기록 했다. 이를 중원에서는 일본 동쪽 3000 리 밖에 부쌍(扶桑)국이 있다고 연막을 쳤다. 통전에 실린 이 기록이 사라졌다고 한다.⁴³ 통전과 같은 시대 편술된 신구 당서와 수서는 살아 있다. 금미달을 떠난 사람들이 동남아 해안을 장악 했다. 남북조 시대에 나타났던 [왜왕이 다스렸다는 “新羅 任那加羅”라는 글자들] 이다.

44

왜(倭)의 종주국이 었던 부여씨의 백제가 멸망 하여 왜가 주동이 되어 한반도 이외 백제 담로(擔魯) 었던 여러 나라를 동원하여 (너무 늦게) 구원병으로 왔다가 백강 전투(白江戰鬪; 663 년 8 월)에서 패망하고 돌아가 오늘의 관동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일본(日本)이란 칭호를 사용 했다. 그후로도 구주에 었던 왜는 계속 신라를 치려 하여 문무왕이 죽어서라도 왜를 막겠다는 결심에 유언을 남겨 바닷속 바위에 물혔다.

신라 본기에는 [문무왕 이후에도 왜는 신라에 적대 관계였고 일본은 우호적이 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 보인다. 그러한 여파가 임진란 때에도 나타났다. 구주 사람들(倭)이 조동이 되어 정명가도(征明假道)란 기치 아래 한반도를 침략 했다. 임진란 이전에는

43. [通典](#) 新羅: 至隋文帝時, 遣使來貢。其王姓金名真平, 隋東蕃風俗記云: 「金姓相承三十餘葉。」文帝拜為樂浪郡公、新羅王。其王至今亦姓金。按梁史云姓慕, 未詳中間易姓之由。其先附屬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 滅之。並三韓之地。

44. [광개토대왕 비문에 실린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새로운 고찰](#)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

대만섬을 침략 했다. 일본땅 (관동)에 자리잡은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란에 관여 하지 않아 이조 왕실 사절단을 극진히 맞아 드렸다.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일행의 방문을 그린 그림이 국보로 전해 온다.⁴⁵

누가 언제 한해(瀚海)의 남쪽 항로를 개발 했나?

이는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자는 마땅히 깊이 다루어야 한다. 남북조 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관한 기록은 한중 두나라 기록이 모두 흥미 하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이 대동강 하구에 있던 백제 개로왕(蓋鹵王, 扶餘慶: ? ~ 475 년)의 수도를 급습 했다. 그 시절에 왕자가 신라에 구원병을 청하러 갔다. 구원 병을 이끌고 돌아 오니 한성은 이미 함락 되었다. 문주왕(文周王, 文淵王 汶淵王: ? ~ 477 년)이란 칭호에 물수 변을 붙이기도 한다. 서해안 어느 섬에 일시 정착 했었다고 본다. 그 시절에 중원에 도움을 청하러 갔던 사신이 479 년에 한반도에 도착 했다.⁴⁶ 그당시 (南齊 建元元年) 가라왕 하지(加羅王荷知)가 중원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제서에 있다.

이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다. 가야국 가실왕(加耶國嘉悉王)이 산동반도에 내려와 정착 했던 곳을 삼국사기에 신라 북쪽 영토로 기록한 실직(悉直谷國. 悉直國. 悉直州)이라 했다. 고구려 장수왕이 신라영역이었던 사직성(新羅悉直州城)을 점령 했다. 그후 한해 중앙 항로를 장악 했던 부여용 세력(餘奴)을 제거 하고 남제태조 도성(南齊太祖蕭道成; 427 년~482 년) 과 교류 했다. 이 당시에 나라를 잃은 연왕 홍(燕王弘)의 아들 태자 왕인(取其太子王仁) 이 왜 (일본)로 도망 갔다. 그를 박사왕인 (博士王仁) 이라 한다.

⁴⁵. [조선 통신사 행렬도 | 소장품 검색:국립중앙박물관 \(museum.go.kr\)](https://www.museum.go.kr)

⁴⁶. [왜인전\(倭人傳\)본론 설명-4: 한해\(瀚海\)의 동서쪽-1: « Lee Mosol's Book Collection \(ancienthistoryofkorea.com\)](http://www.ancienthistoryofkorea.com). 南齊書: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

「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為鎮東大將軍。

고구려에 인질로 잡혔던 왕인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구주에 갔다. 그러나 백제 부여왕이 중원에 있던 대륙 백제에 구원병을 청하러 보냈던 사신 이름은 불명 하다. 수서에 백제 부용국으로 풀이 하는 도사마국(都斯麻國)으로 풀이 한 가락국(駕洛國) 하지왕이 백제 사신으로 갔다고 본다.

신라 백제 왜 일본(倭, 日本)과의 관계:

금미달 지역에서 옥새(玉璽)의 원조가 되는 화씨벽(和氏之璧)이 나타났다. 지도자란 뜻의 감(監)자에 물수 또는 풀초 변등을 더해 여러 글자를 만들어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사자성어가 나타났다. 진수가 금미달(今彌達) 지역 호타하 연안에 살던 세 지도자 삼감(三監)이란 뜻을 삼한(三韓)이란 명칭을 만들고 높은 지도자(큰 가한 Kahan)란 뜻을 비하 음차 하여 적을 소자 왜(倭; wēi wō wǒ; 魏, 微: 汗[hán])로 기록 했다. 글자를 바꾸었다는 근거가 삼국지 왜인전과 단석괴전에 있다. 발해만 서쪽 한국(汗國)을 공격하고 한인(汗人) 수천명을 잡아갔다. 동이전에는 원시 불교가 중앙 아시아를 돌아온 전래 경로에 왜(倭)자가 신라의 옛이름 시라(斯羅)와 같이 실렸다.⁴⁷ 같은 내용을 태평어람에는 왜(倭)인전에 실었다. 삼국지 위서에 실린 선비(鮮卑)와 여러 미(彌)자가 금미달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도읍을 뜻했다.

이러한 글자들이 신라 백제 임나 가라와 같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실렸고, 중원의 동쪽 해안을 따라 흐쳐져 나가 왜왕이 다스렸다는 기록이 여러 남조 역사서에 실렸다. 이들이 모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 하던 시절에 한해(瀚海)를 건너 동쪽으로 와 수나라에 듣기 불쾌한 문구를 보냈다.

47. [三國志](#) 鮮卑傳: 聞汗人善捕魚, 於是檀石槐東擊汗國, 得千餘家, 徙置烏侯秦水上, 使捕魚以助糧。

至于今, 烏侯秦水上有汗人數百戶. [太平御覽](#) 倭:

《魏志》曰: 倭國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為國, 舊百餘小國。漢時有朝見者, 今令使譯所通共三十國。又渡海千餘里, 至末盧國, 戶四千, 濱山海居, 人善捕魚。

문무왕 10년 (671/1/17) 봄에 왜(倭)가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었다(倭國更號日本)는 통고를 하고 701년에 당나라에 알렸다.⁴⁸ 일본(日本)이라고 바꾼 유래는 부여씨가 대륙에서 밀려난 수나라에 보낸 서한에 “해뜨는 나라 천자가 해지는 나라 족하에게” 하는 문구에서 나타났다. 화가난 수양제가 609년에 배청(裴淸)을 사신으로 처음으로 한해의 남단 항로를 따라 백제를 대만섬(桴牟羅國)을 지나 죽도를 돌아 낙동강 하구 김해를 거쳐 구주를 다녀 왔다.⁴⁹ 위징이 대만섬을 묘사 했던 이름에서 한글자를 빼고 담라국(桴羅國), 김해를 도사마(都斯麻) 즉 백제 무령왕(武寧王, 462년 ~ 523년)의 수도라고 했다.

중원 사람들이 한해(瀚海)의 동쪽을 탐방한 첫 기록이 수서다. 백제와 신라 여러 나라가 왜를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수서에 있다. 그 당시 수나라가 동번기(隋東蕃風俗記; 대만섬 방문기)를 만들어 신라 왕실의 유래를 남겼다. 수서에는 가락국을 멀리서 왔다는 뜻에 불가에서 쓰는 글자 가라(迦羅)라 했다. 통전에 실린 이 기록이 사라졌다고 한다.⁵⁰ 신구 당서와 통전은 살아 있다. 백제(百濟) 왕인(王仁, ?~?) 박사가 왜국에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는 기록이 일본사서에 있다.

⁴⁸.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六: 土星入月。京都地震。中侍智鏡退。倭國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為名。 [通典](#) 邊防序: 倭國一名日本，在中國直東；扶桑國復在倭國之東，約去中國三萬里。倭一名日本，自云國在日邊，故以為稱。武太后長安二年，遣其大臣朝臣真人貢方物。

⁴⁹. [隋書](#): 平陳之歲，有一戰船漂至海東桴牟羅國，其船得還，經于百濟，昌資送之甚厚，并遣使奉表賀平陳使者言倭王以天為兄，以日為弟，天未明時出聽政，跏趺坐，日出便停理務，云委我弟。度百濟，行至竹島，南望桴羅國，經都斯麻國，迴在大海中。倭國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為名。裴淸使於倭國。倭國: 百濟皆以倭為大國，恒通使往來。 [通典](#): 倭國一名日本，在中國直東；扶桑國復在倭國之東。

⁵⁰. [通典](#) 新羅: 至隋文帝時，遣使來貢。其王姓金名真平，隋東蕃風俗記云：「金姓相承三十餘葉。」文帝拜為樂浪郡公、新羅王。其王至今亦姓金。按梁史云姓慕，未詳中間易姓之由。其先附屬於百濟，後因百濟征高麗，人不堪戎役，相率歸之，遂致強盛，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並三韓之地。

금미달을 떠난 사람들이 중원 해안을 따라 지나라고 부르던 중국 남쪽 지역에 살았다. 그들이 상인으로 동남아 해안을 향해 했다. 남북조 시대에 나타났던 [왜왕이 다스렸다]는 글자들 이다.

이는 왜(倭)의 종주국이 있던 백제가 멸망 하여 왜가 주동이 되어 한반도 이외 백제 담로(擔魯) 였던 여러 나라를 동원하여 (너무 늦게) 구원병으로 왔다가 백강 전투(白江戰鬪; 663년 8월)에서 패망하고 돌아가 오늘의 관동 지역에 도음을 정하고 일본이란 칭호를 사용 했다. 담로(擔魯)란 백제의 관어(魯言語)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귀머거리(擔譚聾)들이 사는 지역이란 뜻이 있다. 그후로도 구주에 있던 왜는 탐탐히 신라를 치려고 했다 하여 문무왕이 죽어서라도 왜를 막겠다는 결심에 유언을 남겨 바닷속 바위에 물렸다.

신라 본기에는 [문무왕 이후에도 왜는 신라에 적대 관계였고 일본은 우호적이 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 보인다. 그러한 여파가 임진란 때에도 나타났다. 구주 사람들(倭)이 조동이 되어 정명가도(征明假道)란 기치 아래 한반도를 침략 했다. 임진란 이전에는 대만섬을 침략 했다. 일본땅(관동)에 자리잡은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란에 관여 하지 않아 이조 왕실 사절단을 극진히 맞아 드렸다.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일행의 방문을 그린 그림이 국보로 전해 온다.⁵¹

이를 중원에서는 일본 동쪽 3000 리 밖에 부쌍(扶桑)국이 있다고 연막을 쳤다. 또한 명나라 정화(鄭和, 1371년 ~ 1434년)제독이 스리랑카(Ceylon) 섬을 정벌했다는 연막극을 쳤다. 신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먼저 점령하고 만주에 남아 있던 사실을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할때 고구려왕이 피신했던 곳을 [고구려는 되돌아 가고 남아 있던 사람들이 신라가 되었다]고 했다. 부쌍(扶桑)국의 부쌍이란 글자는 우리양곡(居郁夷 日暘谷) 이라 했던 지역에서 북쪽으로 밀어 산서성 대군 "쌍건하(桑乾河)일대에 접 붙였다.⁵² 당나라 에서는

⁵¹. [조선 통신사 행렬도 | 소장품 검색:국립중앙박물관 \(museum.go.kr\)](http://museum.go.kr)

⁵². [東觀漢記](#) : 章帝元和二年，三足烏集沛國。代郡高柳烏子生三足。 [淮南子](#) 天文訓: 日出於暘谷，浴于咸池，拂於扶桑，是謂晨明。登於扶桑，爰始將行，是謂朏明。至於曲阿，是謂旦明

백제를 공격 할때 김춘추가 우리양곡에 살던 사람들의 후예란 뜻에 에게 우이동행군총과 (嶠夷道行軍揔管)이란 작위를 주었다.

한국과 대만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개념을 비교해 보세요.

지정학이란 어떤 특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 있다.⁵³

한글 표기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필자는 이를 [문법은 헌법 보다 중요 하다.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고, 만주등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의견도 참조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극히 반대 했다. 후에 이를 주관했던 김 XX 교수의 친필 편지를 받았다. 그 원인은 한글학회 두 학파간의 감정에서 시작 되었다. 물리대 국어학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 문턱이 높았다. 사범대학 국어학과 교사들이 전국에 흐터져 있고 정부 관계에서도 일하던 상태라, 문리대 한글학과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잃었고 숫적으로 턱부족이었다.

현지음에 따른다는 외래어 표기법은 매국 행위다. 삼한(三韓) 땅 한반도에 있는 큰 강은 마땅히 클 한자 한강(韓江)으로 적어야 한다. 현지인의 뜻을 살린 옛적 번체 이름자로 선조들이 쓰던 연경(燕京) 북경(北京) 중경(重京) 상해(上海) 광동(廣東) 하는 글자로 사용해야 한다.

끝 마침 말

도산은 개몽이란 뜻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 적용 했다. 시대는 변했다.

⁵³. [台湾 - 维基百科，自由的百科全书 \(wikipedia.org\)](https://ko.wikipedia.org/wiki/%E5%8F%B2%E5%9C%B2) 대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https://ko.wikipedia.org/wiki/%E5%8F%B2%E5%9C%B2)) [History of Taiwan -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aiwan)

도산이 인용한 개몽이란 어휘를 깊이 살펴 볼때다. 자유국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앞서 인용한 학교 선생직을 너머 새로운 현상을 찾아 연구를 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화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관을 대학 교정에 설치한 현실이다. 우리 선조가 살아온 역사를 잘못 인식한 배운자의 행태다.

우리민족이 상형글자를 처음 만들었다. 고려가요 가시리를 진음(秦音)이라 했다.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 하고 여러 글자를 하나로 통일 하여 예서(隸書) 문자가 나타났다. 산서성(隸省)에 살던 예(濼·穢·穢) 맥(貉·貉) 사람들이 쓰던 글자가 오늘의 변체다. 변체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동북아 상고사의 종주국으로 중원을 석권하며 살아 발조선 시대(發朝鮮 時代)가 있었다. 중원사람들이 붙인 춘추전국 시대(春秋戰國時代)라 부르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못 인식해서 나타난 결과다.

인문 사회과학에서는 동북아 상고사를 깊이 연구 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재미 지식인들이 주동이 되어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찾아 가는 기틀을 만들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길이 미국에 사는 지식인들이 해야할 도산 사상의 실천이다. ***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도산 정신

한응섭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너머의 대서사이다. 수많은 한인들이 조국을 떠나서 세계 도처에 어렵사리 마련한 터울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한민족의 집념과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의 환경은 척박했다. 맨처음 낫선 땅에 첫발을 내디딘 한인들은 설렘과 기대의 감정을 추스르면서 장차 당면할 새삶의 노정이 순탄키를 바랐다. 내 조국에서의 아름답고도 상쾌했던 일을 떠올리고, 항상 자신의 존재감을 고무시키리라 마음을 다독거렸다. 일선에서 가장 컸던 벽이란, 언어장벽이었다. 현지인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참아내기가 어려워, 언어 체득하느라 적잖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후의 생활이 음식 조리에 양념을 친 양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통로였다. 열대의 바다를 건너기 전 한인들은 역사의 무게를 안고 떠나야만 했다. 일찍이 조상들의 투쟁과 희생정신을 품었기에, 새곳에서 싸내려가는 새역사 일지가 공고했을 테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주민들간의 대화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나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타 문화와 접촉하여서도 새 아이덴티티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하나, 여전히 디아스포라의 배경에는 험준한 여정과 두꺼운 언어 장벽, 문화적인 충돌 소지, 차별과 갈등은 한인들이 타파하고 넘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말해서는 개별 개인의 흩어진 존재로 지칭할 수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도산정신이 부여한 힘의 상징성이 짙다. 도산정신은, 조선시대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한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는 열정과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산정신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희생과 투지를 겸비한 전사로 거듭 나가게 했다.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조국 한반도의

독립과 번영을 촉진시키고자 비장히 결기되어 있다. 도산정신이 그들에게 자주 독립에 대한 불굴의 정신을 심겼음이다. 때문에,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고 전파시킴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또한 그들이 현지에서의 활동과 사회적 참여가 도산정신 아래 행해지는 것이어서 미래지향적 빛깔이 짙다. 디아스포라에서는, 도산정신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것은, 문화 충돌이나 차별 등속의 상황에 노정됐을 때의 한인들은 불굴의 도산정신을 발휘, 타개한다. 역사와 가치, 자부심의 발로이다. 도산정신이 설파한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한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희생과 가치를 머리 위에 두라와 상통한다. 현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은 조국과 디아스포라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도산정신의 가치와 원칙을 실행한다. 리더들은 또한 디아스포라 내에서의 한인들의 결속을 도모하며 우렁찬 목소리들이 만방에 전승되게 한다. 도산정신은 한인들에게는 항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고취하고 독자성과 정체성을 지키게끔 역할한다.

디아스포라에서 도산정신의 울림 폭은 광대하고도 광활하다. 그중 정열과 집념의 원천이 발원됐고, 조국과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한인들간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새롭게 도약한 후 성취하는 가슴 벅찬 희열도 자주 체험할 수 있게끔 발전했다. ***

색인

김용환	14
림관현	4
이돈성	49
이창수	11
최영배	12
한응섭	68

DOSAN 2023

Korean Diaspora & Dosan Spirit

Hung Sa Dahn USA (YKA USA)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KAUPA)

January - September 2023

Application:
dosanessay@gmail.com



The 2nd Dosan International Essay Contest



DOSAN 2023

도산 국제수필 공모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도산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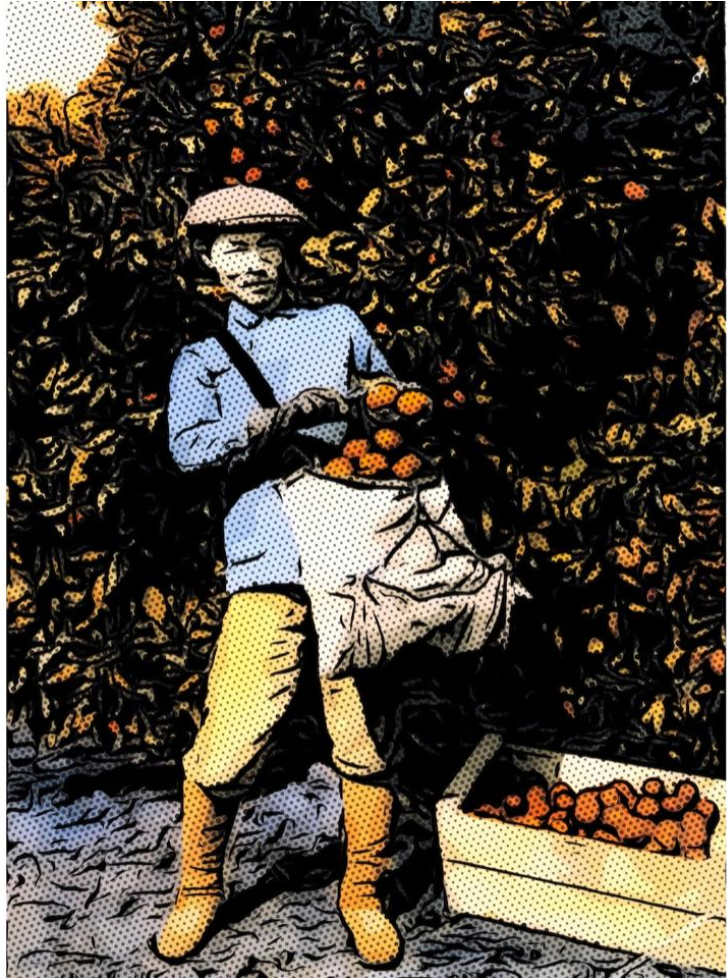
흥사단미주위원부(YKA USA)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

응모 마감일: 2023년 9월 30일

수필 응모처 및 문의:

dosanessay@gmail.com



제 2 회 도산 국제수필 공모전

